東亞日報

發行所 京城府花洞一三八番地 株式會社 東亞日報社 發行兼編輯人 印刷人

十二月廿四日前場 突破九圓臺

團結하는方策
公德心訓練 組織的計劃 이如何

現下朝鮮人의 復活할唯一한方道가 民族的으로 大同團結하는데 斷在하다한것은 吾人의 屢陳不已한바라 更히 贅說할必要도업다 政治的解放을圖하려하거든 몬저政治的團結을要할것이며 敎育의振興을策하라면 몬저敎育的團結을作할것이며 經濟의發展을求하려면 몬저經濟的團結을作成할것은 理勢의必然한일이다 엇지空論으로 空想으로 우리의모든問題를解決할수잇스랴 勿論現在에도 此種類의色彩를씌인團體와會合이업는것은아니나 그러나 그實際的活動과 結合의程度를考하고보면 看板的廣告와 一時的會合에 不過하는것이 不少함을 現象이안인가 紛糾와分裂이 不絶한것을 見할時에 엇지暖然寒心할바가아니랴 自體의結合이 鞏固치못하며 또한 標榜한目的에 對하야 半乎한決心이 激弱한以上에 엇지一步를進하야 對外的으로 모든障碍를排除할수잇스며 또한그經綸과理想을 實現할수가잇스랴 그럼으로 現在의吾人은 무엇보다도 몬저團結하는方策을 講究할必要가잇다 엇지하야團結이잘되지못하며 엇지하면團結이잘될가하는것이 問題의焦點이라한다 吾人의所見에依하면 첫재團結하는方策으로 公德心에對한 覺醒을喚起치아니하면아니될것이다 在來우리의社會的生活에 公德心이잇섯느냐하는것이 一種의疑問이다 設令잇다할지라도 極히隱微하며 薄弱하얏든것이 不諱할事實이다 勿論祖先崇拜와 家族保護의道德的觀念이 不無하엿스나 이는民權擴張과 社會發展의 奉公的道德과는 그觀念이相異할뿐아니라 도로혀그公德心을 薄弱케하는 一種의原因이되고마랏다 普通傳來의 忠君愛國이라는 標語가流行하엿스나 이도또한 奉公的觀念에서 發現된것이아니라 一種의封建的思想에서 胚胎된것이 分明하다 이러고보면 根本的으로 社會에對한 奉公的觀念이 缺陷된 朝鮮民族이 엇지하야 奉公的團體를 完成할수가잇스랴 이러므로 朝鮮人의 國家的觀念은 民衆의發展을 主張로하는 民主的思想이아니라 一種의化家爲國하는 英雄式觀念에 根據하야왓다 이러한傳統的思想이 民衆的結合을 薄弱케한것이안인가 그러면 民族的으로 大同團結을 絶叫하는 吾人은 일로부터 朝鮮民族의 公德心喚起를 또한 絶叫치아니할수업다 나는드르니 米國에서 有名한 『엘』大學敎盲에는 이러한말이잇다한다 『敎育은生命의發展을爲하야 存在한것이며 生命의 發展은 奉公에依하야 完成될 것이라고』 하엿다 果然그러라 現在의 米國人으로 社會的團結에 저와가치 鞏固한 原因이 잇다하면 이는반듯이 學校로부터 奉公的精神을 이와가치 涵養訓練하는데 斷在한것을 推想할바가아닌가 그러면 우리朝鮮人도 團結하는 形式(會名目的任員)보다도 몬저 團結의 土臺가 되는 奉公的精神을 取하는것이 第一要務가아닌가 둘재는 組織的計劃이다 團體라하면 統制力이 잇서야 할것이며 確乎한 目的이 잇서야 할것이며 또한 責任잇는 會員이 잇서야 할것이다 맛치 自然人이 健全한 精神이 잇스며 耳目口鼻와 手足이 잇는것과 小異가 無하다 그럼으로 團體는 烏合의 衆이 아니며 觀光의 客도 아니다 ……

朝鮮史槪講(三十二)
杜稜生 李丙燾

第二篇 中古史 (高麗朝)(續)

第七章 蒙古와의關係(續)

(二)第一回의蒙寇와講和(續)

그간我軍便으로서도龜州西京兩城과가치間或勝利를어덧기도하얏지만大體로보아我軍의無力을暴露함에不過하얏섯다 腹冬正月中에잇는王都는그運命이朝夕으로迫하야高宗은親히撤兒台의勸降使를引見하고王弟淮安公侹을安州에보내여蒙將과會見하고和를講케하엿섯다 撤兒台는이를許하고高麗의京府州縣에達魯花赤(音으로다루가치니『總督』知事와가튼者)七十二人과若干의守備兵을留하고翌十九年正月에大軍을班하엿섯다

(三)第二回第三回의蒙寇

右와가치高麗는敵의武力에堪치못하야一時不得已講和는하게되엿지만機會만잇스면蒙古의勢力을驅逐하고自家의安康을圖하려하엿섯다 그리하야朝廷에는이미二派의策論을生하야或은(崔瑀와가튼사람)消極的方法으로遷都說을唱하고或은(金世冲과가튼사람)積極的方策을取하야防守說을主張하얏섯다 그러나마츰내遷都論이勝을制하야同十九年六月에崔瑀는王(高宗)을擁하고江華島로옴기고……

너희들은무엇을어덧느냐 (90)
廉想涉

(중편) 六ㅣ三

……

社告

一、分局의名稱 局子街分局
二、分局의位置 間島局子街
三、分局員의職氏名
支局長 李喆
總務兼記者 金祥鎬
顧問 朴瑞陽

右와如히分局을變更하옵고一般의業務를擴張하얏사오니管內에居住하시는愛讀諸位는如此照諒하시옵소서

東亞日報 間島支局白

高級文藝 創作小說 反抗

春城作 (一部定價六十錢 送料書留九錢)

熱狂的歡迎! 白熱的歡迎! 忽然三版出來!

出版한지不過一個月에 初版一千部와再版一千部를삭결갓치賣盡하야 貧弱한우리出版界를놀나게하고 於焉間三版이出來하야또다시賣盡되여감니다 이것으로써 本書의價値를알수가잇스며 따라서本書가現代靑年과 얼마나共鳴이되는것을 可히알겟습니다 本書는 新進文壇에일홈이잇는 春城盧子泳君의 力作이다 在來道德을根本的으로 破壞하라는 火山물갓흔뜨거운 氣運! 自由와解放을絶叫하는女性의우뢰갓흔소래! 다시戀愛와 靑春을高調하는새사람의 힘잇는우름! 이러한것을붉은피로쓰고 더운눈물로그리고발간꼿으로繡노흔것이니 句節마다 갈로베히면 피가흐르고 눈물이쏫아지고 꼿이써러질듯한 生命잇는高級의 作品이다 아 우리文壇에 이러한作品이 오날々々까지 이섯는가!

戀愛의書簡集 사랑의불꼿

歡迎!歡迎! 注文殺到! 忽然三版出來!

初版二千部가不過五十餘日以內에賣盡되야우리出版界에 처음되는記錄을일우고 再版二千部가또다시賣盡되여三版이또다시出來하엿슴니다 아 놀나마시오! 그것은現代新進文士들이 靑春의熱情과피를쏘아 힘잇게쓰고 아름답게쓴 戀愛書簡集이외다

《內容》 꿈에본處女에게 / 悲戀을마신후에 / 銀絲갓흔봄우에서 / 비오는밤에 / 月花氏에게 / 달은밝은데 / 사랑하는또리는氏에게 / 愛人ㄱ孃에게 / 一花氏에게 / 世上은뒤로두고 / 쏫피려는愛人에게 / 黃昏에서 / 첫사랑의눈물 / 愛子에게보내는最後의片紙 / 帽子의靈압헤 / 黃浦灘의물소래를들으면서 / 東京잇는愛喜氏에게 / 最後의하소연 / 비ㅅ벗惠順氏에게 / 나도사람이워다

定價六十錢 送料九錢

販賣所
漢城圖書株式會社 京城堅志洞三二番地 振替京城七六六〇番
朝鮮圖書株式會社 京城堅志洞六〇番地 振替京城八二五五番
東洋書院 京城鍾路二ノ八六番 振替京城四九二番
德興書林 京城鍾路二ノ二〇番 振替京城三九〇一番
滙東書館 京城南大門通一ノ一七 振替京城七一二番
博文書館 京城鍾路二ノ八八番 振替京城二〇二三番
永昌書館 京城蓬萊町一ノ八五番地 振替京城六二三一番
南書館 開城南大門內

天高風淸한此時服藥家에苦待하든此日 本商會特色은三週年紀念으로熱誠을表하나이다 ○藥은材料를擇지아니면効力이無함니다 貼藥에價格은大略左와如함
十全大補湯 特劑三圓五十錢 上劑二圓七十錢
六味湯 特劑二圓五十錢 上劑一圓八十錢
八味湯 特劑三圓 上劑二圓八十錢
倍四物湯 特劑一圓廿錢 上劑一圓
雙和湯 特劑一圓二十錢 上劑一圓
補中益氣湯 特劑一圓五十錢 上劑一圓
附子理中湯 特劑一圓五十錢 上劑一圓
肥兒湯 十貼 特劑八十錢 上劑六十錢
水土湯 廿貼 特劑三圓 上劑二圓
六味丸
京城府授恩洞三十二番地 藥材直輸入 藥種貿易 朝鮮商會 振替口座京城一〇三八六番

元豊號 直輸入精製와 正價都散賣는 京城南大門通四丁目廿一番地
營業科目 毛物各種 女子用조바위 諸緞 洋緞 족기各種 地方注文에는代金引換함

保險付 ◎理髮機具販賣大擴張◎ ◎面刀外附屬五品無代進呈 大特價提供
並等品 二圓五十錢 特等品 三圓也 特別製 三圓五十錢
●品質精選切味良好는弊商會의特色 ●他店比格을乞 地方注文迅速酬應
京城府鍾路一丁目 理髮器具直輸入商 明治商會

李王家御嘉納品 特價金拾五圓也
釘本洋樂器店內 電解工業所出張所 京城本町二丁目二九 電話本局二八三番
注意

朝鮮史講座
朝鮮史唯一의講義錄 各科專攻의諸大家執筆
總裁 政務總監 有吉忠一閣下
會長 總督府學務局編輯課長 小田省吾閣下
顧問及講師 三十餘名
京城府長谷川町七六 朝鮮史學會發行 振替京城一二三二番
每月一回發行 一個年完結 每冊約百五十頁
一般史、分類史、特別講義에分한朝鮮의文化를平易懇切히講述한朝鮮史를徹底的으로理解하라는諸士는速히入會하시요 見本御請求次第無料進呈함

注文하시오 活版印刷면 東亞日報社印刷部에 電話光化門一三四七

◎보라!! 京城書館創立貳週年紀念自祝大擴張大宣傳!!!

◎內外各種新舊書籍의特別破格大賣出!!

大正十三年陰曆歲次甲子年節候表

月	日辰	節	日	中氣	日
正月大	甲寅	立春	初一日	雨水	十六日
二月小	甲申	驚蟄	初二日	春分	十六日
三月大	癸丑	淸明	初三日	穀雨	十七日
四月小	癸未	立夏	初三日	小滿	十八日
五月大	壬子	芒種	初五日	夏至	廿一日
六月大	壬午	小暑	初六日	大暑	廿二日
七月小	壬子	立秋	初八日	處暑	廿三日
八月大	辛巳	白露	初十日	秋分	廿五日
九月小	辛亥	寒露	初十日	霜降	廿六日
十月大	庚辰	立冬	十二日	小雪	廿六日
十一月小	庚戌	大雪	十一日	冬至	廿六日
十二月小	己卯	小寒	十二日	大寒	廿六日

凡三百五十四日

寒食 三月初三日 / 初伏 六月十九日 / 中伏 六月廿九日 / 末伏 七月初九日 / 八日得辛 酉大將 三龍治水 寅喪門

祝日及祭日: 四方拜 一月一日 / 元始祭 一月三日 / 新年宴會 一月五日 / 紀元節 二月十一日 / 春季皇靈祭 三月廿一日 / 神武天皇祭 四月三日 / 明治天皇祭 七月三十日 / 天長節 八月三十一日 / 秋季皇靈祭 九月二十三日 / 神嘗祭 十月十七日 / 天長節祝日 十一月三日 / 新嘗祭 十一月二十三日

本書館發行의
靑春의사랑 定價七十錢 / 사랑의秘密 同五十錢 / 最後의사랑 同五十錢 / 人情의淚 同八十錢 / 百萬兩의秘密 同六十錢
現行唱歌 定價三十五錢 / 名金會編 定價五十錢 / 人生自由論 同五十錢 / 百方吉凶自鮮 同五十錢 / 名字吉凶秘訣 同五十錢 / 世界偉人學 同四十錢 / 經洛 同一圓五十錢 / 萬寶全書 同五十錢

好評奇書大要
小資本大成功法 定價四十錢 / 營業指南 同四十錢 / 新式現行尺牘 同三十五錢 / 懷中尺牘 同四十錢 / 家庭寶鑑 同六十錢 / 江上淚 同五十錢 / 薄命 同四十錢
最新諺文尺牘 定價三十五錢 / 戶籍令書式法 同六十錢 / 英文典自通 同八十錢 / 戀愛의苦悶 同七十錢 / 戀愛의指環 同六十錢 / 孝女 同二十錢 / 新式唱歌集 同四十錢

新舊書籍出版發行業 京城府鍾路二丁目七十七番地 主 金在恩 京城書館 振替京城壹貳壹四番 電話光化門一〇三三番
◎地方代金引換迅速酬應
◎地方同業者에限하야當分間各種新舊小說實費酬應!!
◎本書館의使命은信用을武器로正直을最上의政策으로大勉勵

ClibPDF - www.fastio.com

獨首相의 悲痛演說

「今日은 經濟能力破綻의 日」

二十日大混亂裡에 休會가 되얏든 獨逸議會는 二十二日에 再開되바 當日에는 現政府의 運命이 決定될 重大한 日임으로 議院의 各入口는 多數한 警官으로 嚴重히 警戒하얏는데 首相「스트레맨」博士는 登壇하야 左와 如한 演說을 試하야 多數한 議員으로부터는 大喝采를 受하얏더라(伯林二十二日發)

「라인」「루얼」兩地方을 佛白兩軍에게 占領된 것은 獨逸의 致命傷이오 又此致命傷이 將來繼續되는 동안에는 獨逸은 到底히 形勢의 挽回를 圖할 希望이 無하니 獨逸은 獨逸에서 支拂하는 賠償金이 다만 佛蘭西의 懷中으로만 輸入하는 것을 默視키 難한바 獨逸은 只今 深刻한 經濟能力이 破綻될 날이 到來하얏다 然이나 外國資本家中에는 獨逸政府에 對하야 少하야도 五十億馬克以上의 融通을 不惜한다는 請求한 者까지 有하나 但此는 現政府가 更迭치 아니할 事를 條件으로 한 것이라 云云

英總選擧와 共産黨

三個條의 要求宣言書

英國共産黨은 今回總選擧에 對하야 宣言書를 發하야 左의 要求를 提出하얏더라(倫敦二十二日發)

一、作業지아니하는 工場及不生産的土地全部를 沒收할 事

二、最低賃金을 一週四磅으로 하고 一日의 勞働時間을 六時間으로 할 事

三、政府는 失業者全部를 扶養하야 此에 住居를 支給할 事

英首相의 應酬陳述

自由黨의 反對演說에 對하야

英國首相「쏠드윈」氏는 自由黨의 反對演說에 對하야 應酬하야 左와 如히 述하얏더라(倫敦二十二日發)

現政府의 政綱인 保護貿易政策이 國民의 輿論에 相副하는 與否를 確認하라면 總選擧를 行하는 것이 最히 公平할 줄로 信하는데 今에 反對黨이 反對를 聞케 된 것은 實로 意外인 中 더욱 意外로 思하는 바는「아스키스」派의 自由黨과「로이드 쪼지」派의 國民自由黨이 合同한 것으로서 此는 恰似히 狹窄한 籠에 二人中一人이 無理로 潛入한 것과 如한 事이라 如何間 今次의 總選擧는 政府의 失策이 아니며 又英國은 砂糖輸入國임으로 其指導를 適宜케 하야 砂糖生産國으로 하지 아니하면 不可하다고 述하얏더라(倫敦二十日發)

米議會와 重要提案

減稅를 爲始하야 貿易獎勵其他

第六十八議會도 不遠에 切迫되얏슴으로 華盛頓政界는 漸次로 活氣를 呈하야 大統領『쿨리지』氏는 議會教書를 今週中에 脫稿하리라고 豫期되는바 議會에는『쿨리지』氏와 大藏卿『메론』氏가 熱心히 主張하는 減稅案을 爲始하야 其他多數한 議案이 提出될 터인데 上院에는 開會後即時

一、米國과 土耳其間의 國交를 回復할「로一싼느」米土條約

二、墨國『오부레곤』政府를 承認한 條項을 包含한 米國의 利權擁護를 規定한 米墨協定

三、米國의 禁酒法勵行의 便宜를 爲하야 搜海權의 範圍를 從來의 三海里로부터 十二海里로 延長키 爲하야 規定한『카一스』『커一손』協定의 批准承認案

等이 提出될 터인바 以上의 批准諸案이 提出되기 前에 前議會閉會臨時에 提出하야 議事日程에 上程되지 못하얏든 國際司法裁判所加入案이 討議케 될 터이나 右國際司法裁判所加入案은 發案者인『하딩』氏는 既爲死去하얏스며 又『쿨리지』氏도 此에 對하야 固執할 態度가 아님으로 其成立與否는 別로 現『쿨리지』政府에게는 多大한 影響은 無할 터이며 更히 一九二二年에 協定한 對中通商規定에 對한 修正案도 來議會에 提出될 터인데 右는 中國에 在한 米國貿易商에 對하야 合衆國의 諸稅를 免除하야 外國商社와의 競爭을 可能케 하고자 하는 案이더라(紐育二十一日發)

奉直和議尙疑問

吳氏의 浙江攻擊도 不可能

吳佩孚氏는 中央政府로부터 直魯豫巡閱使로 任命되는 同時에 心腹인 彭壽莘氏를 直隷軍務幇辦으로 任命한 後 彭의 十五師로서 奉天派에 對立케 하얏스며 一方奉直和議問題는 武器의 返還과 三特別區域을 奉天側의 勢力管內로 한다는 條件下에 成立되는 듯이 傳播되나 張氏는 安民保境의 美名下에 中央政府에 服從치 아니할 것임으로 同問題에는 幾多한 疑問이 有하야 結局和議는 不可能하리라고 觀測되며 更히 曹氏는 吳佩孚氏의 意見을 容納하야 浙江의 盧永祥氏를 甘言으로 誘引하야 要職에 任命한 後 萬一盧氏가 受諾지 아니할 境遇에는 安徽, 江蘇, 福建三方으로부터 爲先浙江을 攻擊한 後 奉直再戰을 開코자 하는 計畫이나 目下江蘇의 齊燮元氏와 吳佩孚氏는 紛爭을 起하야 齊氏가 浙江攻擊에 參加할 與否가 疑問임으로 結局吳氏의 浙江攻擊은 不可能하리라더라(北京二十二日發)

時局問題四個條

外交團對中政府勸告意嚮

英國側消息에 依하면 外交團에서는 不遠間 中國政府에 對하야 左와 如한 勸告狀을 送致할 意嚮이 有하다더라(北京二十一日發)

一、中國鐵道警備를 一層嚴重히 할 事

二、土匪의 掃蕩을 徹底히 行할 事

三、中國의 內亂이 有하면 外國人의 生命財産을 危殆케 함으로 時速히 和平統一을 圖할 事

四、裁兵을 履行할 事

寧遠郡에 時局標榜强盜

「斯速亡國을 救하라」

列强態度와 駐米公使의 警告

北米合衆國에 駐在한 中國公使施肇基氏는 最近上海에 잇는 其親友兪某에게 私信을 送하야 列强의 最近中國에 對한 態度를 痛論하얏는데 其要旨인즉『駐米英伊兩國公使는 最近米國當局諸氏를 歷訪하고 中國의 內亂이 日甚하야 列强이 모다 그 損害를 受하는 中이니 第二次의 太平洋會議를 米國에서 召集하야 其對策을 討論하자 하얏스나 米國當局은 此에 贊成한 以外에 모다 何等의 表示가 無하얏고 또 最近駐米英國代理公使의 所傳하는 消息을 據한즉 英國首相이 駐英各國公使를 請하야 對中政策을 討論하야 中國의 內亂이 終熄될 期望이 無하니 列强은 聯合하야 이를 警告하며 그래도 効力이 無하거든 列强이 對中委員會를 組織하자고 主張하얏다 하니 此意를 國民에 宣布하야 速히 統一을 謀하며 武人의 干政을 除却하야 國亡하는 것을 救하게 하라』하얏다더라(上海二十一日發)

陳派의 大會戰計劃

陳烱明氏는 惠州로부터 二十一日午後五時石龍에 到着하야 二十二日軍事會議及陳派幹部를 召集한 後 大會議를 開하고 廣東攻擊計劃及廣東省善後策問題에 就하야 協議하얏더라(香港二十二日發)

冗員淘汰一萬人

財政部를 爲始하야 其他各部에

新任財政總長王克敏氏의 發案으로 不日間各部內의 冗員淘汰를 行하기로 決定한바 財政部의 千五百名을 筆頭로 其他部內에서도 五百名乃至三百名의 淘汰를 斷行하기로 內定하얏는데 全部는 一萬人에 達한다더라(北京二十二日發)

雙橋無電

買收決定

外交總長顧維鈞氏는 米國公使「숄맨」氏와 協議하고 米國으로부터 借入한 資金으로 三井經營의 雙橋無電을 買收하기로 決定하얏다는데 此에 依하야 中國에 在한 日本의 無電獨占權은 危殆에 瀕하얏더라(北京二十一日發)

카라한氏歸國說

駐中勞農代表『카라한』氏는 不遠間에 歸國할 터이라는 意를 洩하얏다는바 一部에서 觀測하는바에 依하면 氏의 歸國은 日露中兩會議가 如意히 進捗되지 아니함으로 本國政府와 協議하기 爲함이라더라(北京二十二日發)

日無産者援助會組織

露國의 積極手段

今回의 震災에 對하야 勞農露國은「레닌」號를 特派하얏든바 何等의 理由로 目的을 遂치 못하얏든 吾人은 日本의 勞働者와 無産者를 極力援助한다 하야 中央執行委員會中에 日本勞働者及無産階級震災援助會를 起하야 會長에 共産黨員「칸에푸」氏를 擧하고 片山潛氏를 理事로 하야 積極的으로 援助하고자 爲先日本의 勞働者無産者에게 沿海州와「캄차카」漁區森林에 就하야 三十六個年租借權을 與하고 租借料金을 普通의 四分一로 引下하고 其他各種便宜를 與하기로 하야 勞農露國中央執行委員會로서 日本勞働總同盟長鈴木文治氏에게 交付하기로 決하고 其使命을 帶한 二靑年은 十九日上海에 來하야 渡日의 機를 期하는 中이라더라(上海電)

寬城子共産黨의 三條項決議

寬城子의「메스트르쿤」은 去七日夜의 哈爾賓共産派革命記念日에 際하야 勞働者와 中國官憲間의 衝突問題에 就하야 會議한 結果

一、當夜에 發砲한 것은 中國官憲이 아니요 白黨側에서 擾亂을 目的으로 行한 것임으로

二、今後白軍의 行動을 嚴重히 警戒하며 또한 其赤化에 努力할 事

三、朝鮮人及中國人에게 對하야 極力共産主義를 宣傳할 事

의 三項을 決議하얏다더라(哈爾賓電)

移動裁判

具體化

中國側에서 領事裁判權을 回收코자 하는 것은 事實이어니와 本月六日附로 外交部는 判事昭田年氏를 靑島總領事館領事로 任命하얏스며 又判事金潔氏는 上海總領事館領事로 任命된바 右는 司法專任의 領事로서 一定한 駐在地에 駐在하야 其他地方에서 事件이 突發할 境遇에는 直時出張하야 其職務를 執行하게 된 것이며 奉天總領事館에서도 其必要를 認하고 目下講究中이며 不遠間上海靑島와 如히 判檢事를 任命한 後 其衝에 當케 되리라더라(奉天二十二日發)

對議會策其他

憲政幹部會協議

憲政會에서는 二十三日午後三時本部에 若槻, 下岡, 小泉, 望月各總務, 小山幹事長, 仙石, 安達, 濱口, 江木, 早速, 關, 三木, 降旗諸氏가 出席한 後 對議會策, 新政黨樹立問題等에 就하야 意見을 交換한 後 各種으로 協議하얏스나 決定되지 못하고 不日間開催될 總務會席上에서 決定하기로 한 後 午後五時에 散會하얏더라(東京電)

黨首問題協議

憲政會

에서는 二十三日夜에 非公式으로 幹部會를 開하고 合同問題에 關한 態度에 就하야 協議한바 合同派와 自重派間에 合同하야 新黨을 組織한 後의 制度即黨首를 如何히 할는지 或은 合議制로 할는지 等諸問題에 就하야 質問應答을 重하얏스나 結局何等決定한 바가 無하얏다더라(東京電)

火保와 東京側

政府案承認乎

火災保險支拂에 對한 政府案의 大綱이 提示되얏슴으로 內國保險에서는 東京側會社全部와 二十三日午後부터 協議會를 開할 터이든바

各地特別補金

明年度

大正十三年度各地主務豫算案에 就하야는 過日來로 各地主務者와 田原拓殖事務局長及大藏當局間에 十二年度實行豫算을 協議決定한 結果 大體로 十二年度實行豫算을 試한 結果大體로 意見의 一致를 得하얏거니와 此의 正式交涉에 就하야는 拓殖局에서 辦理中임으로 審査가 終了하는 대로 大藏省으로 廻附한 後 本交涉을 行할 터인대 全部의 作成을 見케 되기는 來十二月中旬頃이 되리라 하며 又各地幹部와 大藏當局間에 諒解를 得한 것은 明年度分의 公債全部를 中止하는 대신에 大體로 公債額의 半額假量은 特別補充金으로 國庫로부터 增加支出할 豫定으로서 大體로 左와 如한 總額으로 落着되리라더라

朝鮮豫算은 明年度公債發行二千萬圓을 中止한 後 半額一千萬圓은 特別補充金의 形式으로 支出하고 更히 十二年度分과 同額의 補充金一千二百萬圓이 加入되며 又關稅減收에 依한 三百萬圓을 十三年度補塡할려임으로 結局總額은 十二年度總豫算額에 比하야 約七百萬圓假量이 減少인 十三億七千八百萬圓假量되리라더라(東京電)

長谷川元帥

病氣危篤

其間健强을 害하야 주재 稻田病院에서 療養中이든 長谷川好道元帥는 昨今重態에 陷하얏다더라(東京電)

明年度府豫算

京城府大正十三年度豫算에 對하야는 目下各課에서 調査中인데 來年一月外지에 大體의 編成을 終了하고 二月頃에 協議會의 協贊을 求할 豫定이라하며 豫算編成에 對하야는 財界의 不況等諸般事情으로 因하야 十二年度豫算額以上의 增額은 到底히 期키 難하나(十二年度豫算은 歲入經常部一百廿三萬三千二百六十三圓臨時部七十七萬四十圓) 緊急하야 避치 못할 府廳舍新築費下水道改修繼續費等에 는 多額을 要할 者이 有함으로 十二年度豫算보다 減少키도 亦是不能할으로 結局은 本年度와 大差가 無한 程度로 査定할 方針이라 더라

學校費豫算

朝鮮學校費大正十三年度豫算은 十二月中에 大體의 編成을 終了하고 明年一月頃에 評議會의 決議를 求할 豫定 이라더라

移出米豫想額

約百三十萬石

本年度正月前大阪神戶間에 移出될 朝鮮米는 約百三十萬石으로 豫想되는 바 前年보다는 二十萬石假量의 增加이다 此大阪神戶의 配米를 보면 例年에 徵하야 大阪神戶間即京都「名古屋」神戶, 大阪附近에서 第一少한 時에 一個月約十四萬石餘를 消費하고 最盛季即十二月中旬부터 正月에 亘하야 其三倍를 消費하는 故로 入口를 三百萬으로 보아 一個月半分約六十五萬石이 요 殘餘六十五萬石은 關東方面에 約七八萬石 關西方面에 約七八萬石이 配給될 터임으로 消費될 約百萬石을 除하면 結局大阪에 殘存할 朝鮮米는 約三十萬石假量인데 昨年殘存米七十萬石에 對比하면 約四十萬石의 減量을 示하게 되는 바 一方朝鮮內農民은 其時期 外지에 果然 그만치 賣出할는지 現在狀況으로는 疑問이 다 特히 京都大阪에서는 日本減收의 補充을 朝鮮米에 俟하야 益益朝鮮米를 重要視하는 터임으로 朝鮮米搬入을 期待할 것이나 如斯한 形勢와 天候不良의 關係로 朝鮮內의 出廻는 前年正月前에 比하야 鮮內需用以外에 百三十萬石을 果然出米할는지 매우 興味잇는 問題이라 하겟더라

未墾地開拓과

機械農業

今般江原道淮陽郡에 잇는 獨逸人經營의 蘭谷農場을 視察하고 歸任한 總督府技師는 말하되 江原道와 咸鏡南北道地方을 비롯하야 其他地方에도 만히 殘在한 未墾山麓傾斜地의 開墾은 其面積이 廣漠한이만콤 朝鮮産業의 將來에 多大한 影響을 及할 것인데 朝鮮未墾地中에도 此等山麓地는 北海道나 樺太等의 그것과 달나서 既히 一次火田으로 耕作하던 것이 多하고 地味도 너무 肥沃하지 안키 때문에 實際事業을 進行함에 當하야는 從來의 集約的開墾法을 採用하면 多大한 困難을 不免할 것이다 그럼으로 山麓地開墾을 最히 合理的으로 進行함에는 적어도 開墾當初는 家畜을 本位로 한 大農法을 採用하고 收穫物로써 家畜을 飼育하고 그 廐肥로써 漸次土地를 肥培하는 外에 할 수 업스니 畜産奬勵를 兼하야 事業의 圓滑한 進展을 圖하고 土地의 肥沃을 待하야 漸次耕作의 方法을 集約的으로 하는 것이 第一良好한 方法이라고 할 것이다 今回視察한 蘭谷農場과 如함은 此點으로 보면 民間事業으로 朝鮮唯一의 理想的大農場이라고 할 수 잇다 獨逸人수왈츠氏가 主任이 되고 愛知産業會社에서 土地及資本의 供與를 受하야 獨逸人만으로써 近代的의 大農具를 使用하야 約一千町步의 開墾을 完成하고자 努力하는 바인데 其規模가 過大한 感이 不無하나 다 例를 들면 耕地의 新墾作業에는 모다 百馬力의 蒸氣機關二個를 備置한 蒸氣耕作機를 使用하고 農場內用水는 風車로 汲上하야 鐵管으로 四方에 配水하며

動力

과 夜間燈用과를 兼한 發電所의 建設도 目下既히 進行中임을 보아도 알 것이다 이러한 形勢임으로 財界가 不況한 今日에 在하야는 先히 資本主인 愛知産業會社의 資金供給이 若干困滯치 못하고 農場은 매우 困難한 模樣인대 此에 際는 寧히 될 수 잇는 限度의 緊縮方針에 依하야 現狀維持에 努力하기로 하고 一般經濟界의 順調를 待하는 것이 得策이라고 勸하얏다

農物

의 家畜現在數는 牛, 朝鮮種과 乳牛를 合하야 八十頭 豚約二百頭假量이라 한다 大體以上과 如히 農物의 事業은 目下停頓狀態에 잇다하나 財界의 恢復과 同時에 恢復할 것이어다

米穀檢查規則

改正實現期

全朝鮮精米組合代表者等의 要望인 米穀檢查規定中一部改正件에 對하야는 當局에서도 種種考慮한 바가 有하야 協議한 結果殖産局精米業者雙方에서 諸般의 參考材料를 調査蒐集中이던바 最近全部의 蒐集을 終了하얏슴으로 殖産當局은 是等의 資料에 就하야 研究한 結果既히 大體의 成案을 得하얏슴으로 來十二月上旬頃에 召集될 各道檢查所長會議의 意見을 徵한 後 遲하야도 同月末日까지에는 公布될 模樣인데 其

改正內容

은 秘密에 附하나 大體로 檢查의 實施에 依하야 各地精米業者側의 要望을 容하야 所屬各地精米業者側의 要望으로는 米의 檢查는 無理임으로 今後 不明하나 大體로 檢査의 等級 一等二等三等以外에 等外의 外品을 設하야 一部의 要望을 當然히 一等及二等三等의 品이 現行의 特一二等과 等外의 外에 更히 三等及三四等을 加하야 輸出의 圓滑을 圖하게 되리라 觀測되더라

精米費

支出하면 足할 것에 不拘하고 他一部에는 四圓以上의 支出을 要하는 實例가 有하야 改善의 餘地如何間 當業者의 苦痛에 就하야는 當局도 相當히 同情하는 模樣임으로 一部의 要望은 當然實現될지오 等外品의 輸出에 就하야는 現行의 特一二等과 等外의 外에 更히 三等又三四等을 加하야 輸出의 圓滑을 圖하게 되리라 觀測되더라

實銀合倂說

朝鮮實業銀行은 最近某銀行과 合倂談이 有하야 既히 總督府에 其諒解를 求하는 中이라는 說이 有하더라

當局은 絶對否認

右에 就하야 總督府理財課當局者에게 聞하면 實銀은 朝鮮商業銀行이 元山商業合倂前元山商業과 合倂코자 希望한 事가 有하얏스나 商銀과 元山商業이 合倂된 後는 同行의 合倂談을 聞치 못하얏스며 單히 地方銀行中에 一二合倂希望이 有함에 不過하다 하야 此를 否認하더라

米穀資金出廻

鮮銀券漸增

朝鮮銀行券發行高는 漸次增加하는 傾向인바 二十二日에는 遂히 九千一百七十萬二千八十二圓으로 九千萬圓臺를 突破하고 限外發行도 八百五十一萬四千七百十六圓을 示하야 去二十日에 比하면 四百九十萬四千八百二圓이 增加하얏고 限外發行도 四百八十六萬五千二百七十九圓이 增加하얏더라

對外貿易槪況

入超七千萬圓

十一月上半의 朝鮮對外貿易額은 輸出六千七十二萬五千餘圓 輸入三千七十七萬餘圓 合計四千二百六十餘萬圓인바 前年同期에 比하야 輸出九萬餘圓 輸入三千七十一萬餘圓의 減少이며 一月以後累計는 輸入八千九百四十三萬餘圓으로 輸入超過額은 七千八百五萬餘圓을 計上하얏스나 稻, 棉花, 牛皮及綿織物等이 減少하얏스며 又

朝鐵會社增收

朝鮮鐵道株式會社十一月中旬收入은 客車收入一萬九千九百七十三圓四十三錢 貨車收入二萬一千九百五十四圓九十三錢 雜收入六百二十八圓三錢 合計四萬二千七百二十二圓四十八錢으로 前年同期에 比하야 一日一哩平均二十二錢인바 前旬에 比하야 四千六百四十一圓二十五錢의 增收이더라

商議二級候補變動

商議二級候補者中 朝鮮人側의 既報한 五名中李康赫氏는 府議에 當選되얏슴으로 同町內李熙俊氏에게 讓하고 商議에 落選한 朝鮮人側의 元老常氏는 府議二級에 出馬하기로 되야 朝鮮人二級側도 定員이 一名超過하게 되얏더라

組合銀行珠算大會

京城組合銀行聯合珠算競技大會는 二十三日午前九時부터 公會堂에서 開催하얏는바 十一銀行과 東拓金融部에서 選手約四百名이 出席하야 約三十餘種의 競技를 行하고 最終의 各競技는 四名式의 選手가 連續하야 傳票를 各七十五枚式 二百枚를 計算하얏든바 誤算이 多하야 入選이 無하얏고 午後五時半이 過하얏슴으로 中止하얏는대 競技中特히 成績이 良好한 殖銀의 安命煥 殖銀의 成泰榮兩氏가 特히 優秀하얏스며 決勝競技一等入賞者는 左와 如하더라

▲見取算 一等 安命煥(鮮銀)

▲加減乘除算 一等 朴良植(殖銀)

▲紙幣計算 一等 朴宗阜(韓一)

▲傳票獨算 一等 洪鍾旭(漢城)

▲讀算 一等 金文顯(韓一)

▲割引料計算 一等 高義淳(鮮銀)

鮮鐵中旬業績

京鐵局十一月中旬營業成績은 收入七十七萬九千百六圓인바 昨年同期에 比하야 一萬二千六百五圓 의 增收인대 貨物은 荷物出廻期에 入하야 相當히 荷物이 有한 自然的 增加이며 雜收入은 四萬八千四百五十三圓의 減少인대 從來貨物發着手數料를 雜收入에 計上하얏스나 本年度에 此를 貨車收入에 加計하얏슴으로 因한 것인대 統計는 左와 如하더라

乘車人員	[illegible]	[illegible]
客車收入	[illegible]	[illegible]
貨物噸數	[illegible]	[illegible]
貨車收入	[illegible]	[illegible]
倉庫收入	[illegible]	[illegible]
雜收入	[illegible]	[illegible]
總計	[illegible]	[illegible]
一日一哩平均	[illegible]	[illegible]

輸入

港別	輸出	輸入
仁川	[illegible]	[illegible]
釜山	[illegible]	[illegible]
元山	[illegible]	[illegible]
鎭南浦	[illegible]	[illegible]
群山	[illegible]	[illegible]
木浦	[illegible]	[illegible]
大邱	[illegible]	[illegible]
新義州	[illegible]	[illegible]
平壤	[illegible]	[illegible]
其他	[illegible]	[illegible]
一月以降累計	[illegible]	[illegible]

貸家組合內訌

在滿朝鮮人의 救濟問題에 關하야는 日本官憲側에서도 多大한 注意를 하는 바이어니와 最近奉天에서 起한 朝鮮人貸家建築組合에 就하야는 問題가 有하다 하는데 今에 其內容에 就하야 探聞한 바에 依하면 元來無資產의 奉天 朝鮮人이 加入한 것이며 彼等의 本據인 西塔西十間房元南山地로 滿鐵의 附屬地에 屬한 故로 大地의 所有가 無한 朝鮮人을 爲하야 小住宅을 建築하야 住宅을 供給하고자 한 것인대 組合代表者의 名稱下에 最初 總額을 募集하야 特別料金을 徵收코자 하는 模樣이며 이러한 事件에 對하야 日本 官憲側에서는 組合內容을 調査中이라 하더라(奉天電)

朝鐵慶南線開通

朝鮮鐵道會社慶南線咸安間의 工事는 竣工하얏슴으로 來十二月一日부터 營業을 開始한다더라

南滿鐵道豫算

南滿洲鐵道의 明年度豫算은 主務官廳인 拓殖局에서 審査中이든바 其査定額은 約一千九百萬圓으로 前年의 二千六百萬圓에 比하야 一千九百萬圓의 增加이라더라

辭令

總督府事務官(二等) 私立長一郎
(任)總督府事務官(二等)

消息

●林野調査委員會 總督府에서는 來廿六日廿九日兩日에 第一會議室에서 林野調査會를 開催한다더라

▲八木武三郎氏(東拓理事) 二十三日入京 大和屋에 投宿

▲平井鐵三郎氏(鐵道部長) 十五日午前十時發渡東

▲船津辰一郎氏(奉天總領事) 二十四日大阪發 二十六日入京豫定

▲深澤進氏(吉林總領事) 同上

▲四澤義徵氏(安東領事) 同上

▲山內四郎氏(哈爾賓總領事) 同上

橫說竪說

▲殺人强盜團의 元兇인 某는 將來의 生命에 對하야 懲役十五年의 求刑이 잇섯다 한다 人命一個를 殺害한 데 對하야 平均五年의 計算인가 法務官은 數理에도 밝은 模樣 ▲朝鮮人을 殺害한 自警團員의 게 對하야 今日外지 判決이 나린 中 懲役五年이 最重刑이라든가 여기에는 人命一個에 平均 얼마식 換算이 되얏는지 裁定의 內容이 나좀 드러 보앗스면 ▲日本震災에 對한 中國의 同情에 感謝의 意를 表한다고 渡中한 日本代議士의 表謝團一行은「熱誠」으로 致謝하는 데 對하야 中國到處에서「冷待」로 回答하얏다든가「熱冷」相抑의 中間에 介在한 것은 何物인가 ▲例의 有名한 白殺」이 오「誤殺」이라는 聲明에 對하야 英國人도 殺害한 事實이 發覺되얏다 한다 外務大臣의 聲明에 中國人은 朝鮮人으로 알고 誤殺한 遺憾이라더니 英國人은「誤殺」이라는 聲明이 또 不遠에 나올 模樣인가 ▲土地所有禁止의 確定을 當한 加州在留日本人의 게 對하야 收穫分配契約의 耕作外지 禁止되얏다 한다 加州在留者의 朝鮮移住論이 나 또 생기지 말앗스면

今日本紙六面

專賣局官吏가 술먹고暴行

사람치고잡혀 피해자는위급

京株賣買價(當日)

株名	前場 當限	前場 先限	後場 當限	後場 先限
京取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仁取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鮮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殖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實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商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漢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韓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鮮土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紡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滿毛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京電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電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釜瓦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郵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滿取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京信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金剛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鐵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電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勸信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鴨信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穀信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信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株式市場

京株賣買高

廿四日의 京取市場의 賣買成立高는 如左하더라

甲部	二千八百四十枚
乙部	一
短期	二千八百六十枚

大新暴騰 京取亦反騰

二十四日의 京取市場은 大阪의 高報로 活氣를 帶하야 各主力株共히 昂騰氣勢를 示하얏는데 大新은 八十四圓에 付하야 同價로 止하얏슴

大阪株式延取引

株名	寄付	大引
大株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鐘紡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商船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郵船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東紡	[illegible]	[illegible]
日綿	[illegible]	[illegible]
土取	[illegible]	[illegible]

海外經濟電報

(廿四日着電)

英米爲替	四弗卅七仙八分의三
米	九十五那四分의一
아나콘다	三十七那八分의五
倫敦銀塊	卅二片十六分의十五
米棉	二十二仙高

商況

◎朝鮮銀行發行高(廿二日)

發行高	[illegible]
正貨準備	[illegible]
限外發行	[illegible]

◎日銀帳尻(廿二日)

發行高	[illegible]
正貨準備	[illegible]
保證準備	[illegible]
限外發行	[illegible]
貸出高	[illegible]

(以上千圓單位)

◎京城手形交換(廿四日)

枚數	[illegible]
金額	一,四四八,三七

◎日本金利(廿二日)

	東京	大阪
金利	[illegible]	[illegible]
普通割引日步合	[illegible]	[illegible]
當座貸越	[illegible]	[illegible]
無條件	[illegible]	[illegible]
月越物	[illegible]	[illegible]
六十日	[illegible]	[illegible]

京取一割配當內定

京取市場의 今期決算은 今月末에 終了될터인데 今期는 相場의 變動이 無하고 閑散하얏스나 一割配當을 內定하얏다더라

短期取引

(廿四日)

株名	前場	後場
大新	[illegible]	[illegible]
仁取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朝紡	[illegible]	[illegible]
中國新	[illegible]	[illegible]
拓新	[illegible]	[illegible]
滿取	[illegible]	[illegible]
安取	[illegible]	[illegible]

京城府長橋町六〇 株式仲買人 金應龍

大阪三品(廿四日前場)

限月	寄付	大引
十二月	二八〇,〇〇	二八三,三〇
一月	二八一,三〇	二八一,七〇
二月	二八〇,六〇	二八二,二〇
三月	二八一,四〇	二八二,六〇
四月	二八一,〇〇	二八一,六〇
五月	二八二,七〇	二八一,九〇

京城綿絲布標準價

晒木三A	二八,八〇〇
九A	二七,五〇〇
大A	二七,〇〇〇
金剛山	二四,〇〇〇
金剛	二三,四〇〇
白頭山	一八,四〇〇
晒木綿鷹特	二二,五〇
洋木飛天	二三,八〇〇
洋木世綱	二三,四〇〇
洋木金雞	二三,九〇〇
進軍	一三,六〇〇
綿絲雁面	二七,六〇〇
雙女	二五,〇〇〇

各地穀物市場

廿四日前場延取引時勢

京城

限月	現物
十二月末	十二月中
十二月末	一月中 [illegible]

賣買成立高 [illegible]石

大阪期米(廿四日)

限月	前場	後場
初付	三五,三五	三五,六九
二節	三五,四七	三五,八〇
三節	三五,四五	三五,七〇
四節	三五,四六	三五,六六
五節	三五,四六	三五,五九
六節	三五,四七	三五,五八
七節	三五,五一	
八節	三五,五三	
九節	三五,五八	
止値	三五,五六	

京城府黃金町三丁目 京取市場取引員 豐仲商店

仁川期米市場

硬派勝乘長驅

休日前數日間에 各地步調는 亦米一商商步에 比하면 現狀을 打破한 半步人的 市場에 다가서 內外의 低落되며 相持의 勢이엿는 바 京阪仁川兩地만으로도 猶持하지 또 買勢을 支持하야 天井으로 하야 한 바에 人氣는 一部의 推測은 當問取引의 低落이 이니 先頭로 外人者는 尙히 多數의 方策을 講究하는 模樣이다

限月	群山	大邱	京城
十二月末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一月中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現物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賣買成立高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ClibPDF - www.fastio.com

지난십이일밤에 평남령원군 령원면 방산리박필염(平南寧遠郡寧遠面方山里朴弼炎)의집에 엇던수상스러운 남자두명이 침입하야주인 박필염을보고 하는말이 우리들은 상해 림시정부에서 파견된 조선독립단인데 우리는 조선독립을위하야 이와가치 고 …… 추어간는데 이급보를들은 령원경찰서(寧遠警察署)에서는 여러명의경관이 현장으로 급행하야 사실을 조사하며 종적을수색하

紛糾로서中止에

延期된蹴球大會決勝戰

숭실중학의퇴장이문뎨되야 톄육회간부의인책사직까지

조선톄육회 주최와 본사후원의 뎨사회 전조선축구대회의 결승권은 경기의분규로인하야 부득이연긔하게 되얏슴은 작일에이미보도한 바어니와 이대회의경기는 전조선축구계에서 주목하든바이요 겸하야 당일회장에는 수만의관중이 모혓든 관계로경기를 원만히마치지못하고 중도에연긔를 아니하지 못하게 되얏슴은 소홀히볼수업는 문뎨이라 문뎨의시작은 대회뎨이일에 퇴장명령을당한 숭실중학군(崇實中學軍)에서톄육회의 결뎡에 절대로항거하야 경기의 중심인 중학단의결승권을 진행하기가곤난하게되얏슴으로톄육회에서는 수차이나 긴급회의를 열고 숭실편과교섭하든 중에 청년단의 경기중에도 문뎨가생기고 이러한동안에 일력은이미 진하야 원만한해결을 엇더라도 도뎌히 당일에는 결승권마칠 수가업슴으로 주최자 편에서는 부득이연긔를선언하게됨이더라

觀衆興奮

분규계속중에 허기다린반일

당일주최자 편에는 회당고원훈(高元勳)씨가 근래에문뎨되야잇는보성전문학교(普成專門學校)의긴급한 사무로 인천방면에려행한外닭에 출석지 못하엿슴으로주최자편에는 중심인물이 업고겸하야 숭실편의항의는 실로 맹렬함으로 톄육회간부들도 일시는의견을 통일하기가 어려워 여러가지로 협의한결과 리사원달호(元達鎬)씨를림시회당대리로뎡하야 경기를 진행하게되얏는데그때는엇한시가지낫슴으로관람자들은 매우무료히 지내는 오정이지나 겨우두차례일흔아츰 부터 입장하얏든중 의 경기가잇섯고 그후에는숭실편의 문뎨를해결치안코는 경기를 진행할수가업고 숭실편의문뎨는 량편의주장이 강경한까닭에 분규는더욱심하야 뷔인운동장을 에워싸는사람의 수효는붓석붓석 느러가는중에 시간만흘러가고 관중의불평은 이곳저곳에서 이러나매 갓득이나요사이 신경이 예민한 경찰당국에서는 무슨일이나 잇슬가하야 정복사복의순사를 계속하야 보내는등 운동장안의 공긔는점々 안온치 못하게되야 톄육회에서는회당의 열석과간부들이 숭실편의문뎨를해결하기에만 진력한결과 회장안의 정리가 소홀하게되얏슬 뿐아니라 불편한관람석에서 여러시간 울혀 기다리든 관중은비상히흥분하야분개하는 소리가사방에이러나며한편으로는 숭실의문뎨가분규하기시작하냐가 이곳저곳에서 이의가계속하야 생각다못하야 이미여러시에 갓가왓슴으로 부득이대회는 연긔하고당일에는 해산하기로 선언하게되얏더라

雙方主張의要點

숭실의형식론, 톄육회의사실론

숭실중학교의 퇴장문뎨는 대회의 강령으로뎡한 일년이상재적자라야 선수될자격이잇다하는 조목의 해석으로부터 생긴것인데 숭실편의 주장은 문뎨된선수 당병선(張炳善)은 삼년이나 숭실중학교에서 공부하얏슨 학생으로 금년구월 중순부터십일월 중순ᄭᅡ지 결석하고 광성고등보통학교에 가서 공부한것은 사실이나 숭실에는 뎡규의월사금을 밧치고 ᄯᅩ퇴학한다는 말도업섯스며 오래동안 결석하기에 불러서리유를무른즉 광성학교에 갓다는일을 비로소 알고그와동시에 부형 보증인의 련서로사과서를 데출하얏기에 교사회의의결과 징벌을식히지안코 잘때를 경계한후 그대로 계속하야 공부를 식힌것인즉 재입학도아니오 퇴학생의 복교도아니오 삼년동안 계속하야온재적생이 분명한것을 부정선수라하야 학교의명예에 ᄭᅡ지루를 ᄭᅵ치게하는것은 부당하다함인데

숭실학교에서는 이문뎨를 해결하기위하야 평양으로부터 직원량씨가 사실을 증명할 서류ᄭᅡ지 휴대하고 권위하야 경성에왓스며 이에대하야 톄육회편의주장은 숭실편의 주장과증명은 전부이를사실로 시인하며 그중간에 다시의심할바가업스나 본래학교선수의 자격을 재적일년이상이라고 제한한 근본취지는 선수쟁탈로인하야 선수가 이학교뎌학교로 너머다니는 폐해를막기위함인데 이제 당병선의게 대하야 숭실학교에서는 계속하야 삼년의재적생이라 인뎡하지마는 사실에잇서서 이학교뎌학교로 왓다갓다한것은 분명한즉 형식으로는 자격에합당한 선수라고는 도뎌히 인뎡할수업다 하야 톄육회에서는 결국숭실에 대한 퇴장명령을 번경치아니하기로결뎡하얏더라

引責辭職

體育會幹部

회당과리사가 책임지고사직

톄육회장 고원훈씨는 오후다섯시경 려행으로부터 돌아오면서 즉시대회장에와서 다시 간부회의를열고 선후책을 강구한결과 이번에대회를원만히 맛추지못하게되얏슴은 문뎨가업섯든 각참가단톄와 결승권당일에 다수한관람자제씨의게 매우 미안한 한 책임으로 회당과 리사는이에대한 책임을지고 총사직을하기로결뎡하야 회당이 먼저사표를뎨출하고 리사의사표도 수합하게되얏스며

入場料는公益에 괴부키로결뎡

결승권을 맛치지못하야 입장자의게 매우미안함으로 입장료이나마 돌려보내고저하얏스나 당일오후두시부터는 무료로 공개하얏고 기외에도 무료로드러온 사람이만흐며 입장권을 산사람도 거의전부는 증거될나마지쪽을 버리엇슴으로 부득이당일의 입장료는 전부공공사업에 귀부하기로 결뎡하고

次回의決勝은 무료로공개

연긔한결승권은 다시 이와가튼 분규가 생기지안토록 충분히연구한후 다시 뎡한 일자를선택하야 거행할터인데 그때에는 결승권에 참가할기위하야 디방으로부터 경성에 오는단톄에는 톄육회로 부터 왕복려비를 지발하고 ᄯᅩ결승권당일에는 이번관람자의게진사하는의미로일반에 무료로공개하기로 결뎡하얏더라

『各方面에未安』

톄육회당의말

톄육회당 고원훈씨는 말하되이번일에대하야는 각방면에 여러가지로 미안합니다 일이이에이르기ᄭᅡ지에는 무론 톄육회로서 엇지할수업는 내용으로엇겟지마는당일관람자 제씨와기타 문뎨업는 각참가단톄에 대하야는톄육회 사람이책임을 다하지못한것을 진사치아니하면 안되겟고 ᄯᅩ자긔로 말하면 최근보성전문학교문뎨로 인하야 이번대회에 불성실한 뎜이적지아니 하얏슴으로 더욱이 책임을늣김니다하여간 책임이잇는것은 충분히지어 세상에미안한것을 사례하고 성의를 다하야 선후책을강구코자함니다

◇大會記事正誤◇

금번축구대회 운동긔사중에 긔록된 광성보통학교선수는 광성고등보통학교 선수로 오긔된것이며 보통학교 선수씨명은여좌하더라

金承官 李根淳 安日成 金昌健 孫元善 鄭基浩 高正瀚 金錫熙 金道鎭 金柱恒 卓永善

東京又復强震

손해는적엇스나일시대소동

이십삼일 오전십일시 사십오분에 동경에는 다시무서운소리와 함께 굿세인디진이잇섯다 다행히진동이 완만하얏슴으로 큰피해는업섯스나 갓득이나 놀내인 가슴이 채가라안지도못한 시민들은 크게놀내여 길가로뛰여나오며 시외로다러나는등 일시는매우 혼잡하얏섯다 동경긔상대의발표에의하면 아즉 진원디는 알지못하겟스나 진동은 거의십이분이상이나 걸니엇스며 진폭(震幅)도 이분이리오모에 달하야 명고옥(名古屋) 댱야(長野)디방에ᄭᅡ지진파가밋치엇다더라(동경뎐)

王世子殿下

명춘에귀국

오는이십구일에 동경육군대학을 졸업하시는 리왕세자뎐하께서는 예뎡과가치 명년에는구주에 류학을가실터임으로명년봄에는 조선에한번도라오시어창덕궁과 금곡에고별을하시리라더라

二村洞에 疑似天然痘

위선종두를시행

지난십구일 이촌동(二村洞)에 의사텬연두(天然痘)가 발생하야 그곳숭속에서지내든 김용순(金用淳)은 방금순화원에서 치료중인데 경성부 위생과에서는 만일을념려하야이촌동방면에잇는삼백여명에게작일일제히림시종두(臨時種痘)를 시행하얏다더라

鮮運同友會結束

乘車券問題가動機로

승차권은업서도회의결속은 더욱굿게하겟다는굿은결심

조선텰도 각선에헛허저잇는 삼백여명의 운송업자로 조직된선운동우회(鮮運同友會)에서 만텰경성관리국에 대하야 무임승차권을 청구하야 여러가지로교섭중이라 함은긔보와 갓거니와그에대하야 만텰당국에서는여러가지 사정으로인하야 무임승차권은교부할수업다는 정식통지가 일전에나왓다는데 선운동우회는 그회의성질로 본다던지ᄯᅩ가튼동류의 단톄인 운수계산회사(運輸計算會社)에 이미승차권을 교부한것으로보던지당연히 그만한편의를보아줄듯한데 밀경보기조케 거절한 리면에는여러가지 사정이잇는것가치 추측된다고한다 외케그간의 소식을대강보도하건대

意外의故障發生

중상방해가잇는듯

원래 운송업자들은 전선각뎡거장에 헛터저 잇서 짐짝을취급하는관계상 언제든지 먼곳에잇는 동업자사이에 거래가빈번하며 ᄯᅡ라서피차의 계산관계가 복잡하여서 엇더케하면 피차간의 회계를간편히 처리할수잇슬가하는것과 ᄯᅩ동업자의 신용뎡도를 잘조사하여서 짐짝을부탁하는 화주들과 각운송뎜이 안심한거래를 하게할수잇슬가함이 큰문뎨엿섯다 한편으로재력과설비가 비교뎍 우수한일부운송뎜사이에서는전긔와가치운수계산회사라는주식조직의회사가잇서 가입운송뎜간의 편의를도모하고 회계도 겹케하여왓스나 그결산방법은 다만 서류왕복에 그처서 이류이하의 모든운송업자를 망라커리하기에는 뎍당치 못하엿슬뿐아니라 계산회사의 간부되는 일이류의 우수한운송업자들의눈에는이류이하의운송업자를 수에도

치지안는 거만한 태도를 가저서 도뎌히 일반운송업자의 만족을줄수업는 형편이엿다 그러한관계로 금년일월부터 위주하야 조선사람의손으로 경영되는 경향각역의운송업자는 ᄯᅡ로히선운동우회를조직하고계산방법가튼것도 각텰도선에 사람을 파송하야 일々히 무릅마침을한후상세한계산도하며 신용 뎡도도감시하야 여러가지로 편익을 도모하게되엿스며 그유지 방법으로는 경성에 중앙긔관을두고 각회원으로부터 매삭일원(오십전식이회

普專校長 許憲氏就任

이십사일오전에

보전교댱에새로취임한 허헌씨

보성전문학교(普專)후임교댱으로추천된허헌(許憲)씨는리사회의 간절한희망으로 드듸여취임하기를 승락하고 작일오전열시 그학교안에서 정식으로 취임식(就任式)을하얏다더라

노름판두곳

한곳은중국인 한곳은일본인

재작일 오후일곱시경에 시내태평통(太平通) 이뎡목 삼백삼십륙번디 고원희(高元熙) 집에서 풍건귀(馮建鬼)외 네명의 중국사람이 노름을하다가 발각되야 본뎡서에 인치되고 ᄯᅩ그날오후 아홉시경에는 종로(鍾路)삼뎡목등원사차랑(藤原捨次郞)(三五)외두명의일본사람이 영락뎡(永樂町)일뎡목구십번디에서 노름을하다가들키여본뎡서에인치되얏다더라

七十老婆飮毒

긔한이도골하야

시내동사헌뎡(東四軒町)사십오번디김응서(金應西)의안해리성녀(李姓女)(七一)는재작이십삼일하오령시경에남편이업는틈을타서양재물을먹고머지안은목숨을끈엇다는데 원인은 생활이곤난하야 늙은몸에 치위와주림을 참지못함이라더라

甘粕은十五年에

기타오년이하각々구형

사회주의자대삼영씨외그가족을 참살한 범인에대한 군법재판당에서 이십사일산뎐(山田)검찰관은아래와가치구형을하얏다더라(동경뎐보)

甘粕正彦	懲役	十五年
森慶次郞	同	五年
鴨志田安五郞	同	二年
本田重雄	同	二年
平井利一	同	一年半

警察部에잡힌强盜

五名은檢事局에

여섯명중한명만방면되엿다

얼마전 경긔도경찰부 형사과에서는 활동을개시하야 권총삼회에강도 여섯명을 톄포하엿다함은 긔보한바이어니와 그강도단은 도합아홉명으로 그중세명은 아직 잡지못하엿스며 잡아톄포한여섯명중에 한명은 증거불충분으로 그만방면하고 사실다섯명만 취조를마친후 작이십사일아참에 검사국으로 넘기엇는대 그들의 주소성명은 다음과갓더라

高陽郡龍江面東幕里 李容元(三二)

市內吉野町一丁目 朴敬善(四二)

住所不定 崔英童(二四)

市內明治町二丁目 全今祿(三三)

金浦郡陽東面木洞里 李平山(三一)

未逮捕者

高陽郡崇仁面敦岩里二八一 殷平山(三三)

元山府(以下未詳) 金順萬(三三)

市內岡崎町四三番地 崔東烈(二五)

犯罪事實

경성부근일대를 횡행하든자이다

이제 그들의범죄사실을보건대

一、리용완 최박동 최동엽세명은 지나간이월십사일 오전세시경에 시내도화동(桃花洞)십오번디에서 잡화상을하는 리영석(李永奭)방에침입하야주인을협동하고 란타하고 현금일원오십전과 기타다수한 물품을도적하엿스며

二、리용완 권금록 최박동세명은 지나간구월이십칠일 오전한시이십분경에 고양군룡강면대현리(龍江面大峴里)길가에잇는 박문(朴敬文)잡화소매뎜에침입하야 주인을노끈으로 결박하고 현금일원삼십전과 기타물품을강탈하엿스며

三、리용완 리평산두사람은 지나간십월칠일 오전한시삼십분경에 김포군양동면목동리(金浦郡陽東面木洞里)에사는채귀석(蔡貴錫)방에침입하야 작란감권총으로 주인을위협하고 현금십륙전과 기타잡지등속을 강탈하엿스며

四、리용완 박경선 김순만세사람은 지나간십월구일 오전한시삼십오분경에시내도화동이백사십구번디에 사는리태형(李泰亨)방에침입하야 그집에 손님으로 잇는 리화산(李化山)강영은(康永恩)윤선원(尹善元)세사람에게서 현금삼십여원과 기타시계

五、리용완최박동두사람은 지나간십일월새벽에시내광화문통(光化門通)일백시십번디에사는엄성국(嚴性國)방에침입하다가주인의『도적이야!』하며소래치는바람에 그만도망하엿스며

六、리용완 엄평산 박경선세사람은 지나간십일월팔일 오전열한시경에시내이촌동(二村洞) 삼백이번디에사는산본시팔(山本市八)방에 침입하야 주인을 몽둥이로위협하고『만도』와기타물품을도적하엿스며

七、지나간십월 초순에 리용완 박경선 권금록세사람은 전긔시내도화동 십오번디에사는 리영석방에 침입하라다가 형사가그집에서 경계하는줄을알고 그만 목뎍을달하지못하엿스며

八、리용완,최박동,권금록세사람은 지나간십월칠일오전네시열한시반에시내남산(南山)우에잇는국사당(國師堂)에침입하다가사람이만흠으로 드러가지 못하고 산으로나려오다가 산중턱에잇는무후묘(武侯廟)에침입하야주인을 주먹으로 란타하고안경과 외투속을 강탈하엿스며

九、리용완,최박동등 네사람은 지나간 사월팔일 오후여덟시사십분경에 전긔남산우에잇는국사당에 침입하야 현금사원과 기타물품을 강탈하고 주인의키를 둘간한사실이라더라

二十八石賭博

개벽이래첨이라고

전남보성군 벌교면(全南寶城郡筏橋面)에 ……[illegible] 케박탈을당하고는 사는수가 업 …… 쇄마직이에 소작료 이십팔석을 집뎡하엿슴으로 농사를지여가지고 최씨는 일년간 …… [illegible]

설유를당하엿다

府內諸町三二番地 某新聞社員 上條九朝夫(三二)

府內舟橋町一四四番地 ……

의 두조선사람은 …… 한시반경에 술이잔득 취하야 가지고 시내황금뎡(黃金町)사뎡목 …… 다더라

…… [illegible] 관리라 더라(남서)

現在의青年團體를 한데뭉처보자

청년련합회개성디방회에서결의한단톄부흥책

조선청년회련합회주최의 개성디방대회의 경과한대략은 임의본보에 보도하얏거니와 청년단톄 부흥책에관한문뎨는 예뎡과가치 금월이십이일오후 여섯시부터 송도면사무소 루상에서열니엿는바 당일에참석한 단톄는 고려청년개성상우회녀자교육회송경학회 개성소년회등 다섯단톄로써 개회되야

一、현금에잇는 모든단톄를파괴하야 바리고 다시새로운큰단톄하나를 조직할일

二、현금에 잇는단톄를 그대로두고 각회의간부를모아 련합회를 조직할일

이상두가지의안을 토의한결과마참내 뎨일안을 채용키로가결되야 련합개조촉진 운동위원(聯合改造促進運動委員)으로각단톄에서 한사람식선뎡한바 그회명과 씨명은좌긔와 갓다더라(개성)

高麗青年會代表 西正熙

開城商友會代表 河丕杭

松京學會代表 張熙淳

女子教育會代表 張貞心

開城少年會代表 秦敬英

五十餘名學生은

羅眞敬과面談코저

밤이들도록야단을하얏는데 학생측도반성할필요가잇다

일백사십팔명이나 다수한 학생을 수용하야오든 평양숭의녀학교(平壤崇義女學校)에서는 동맹휴학문뎨가 생긴이후 지난십오일부터 간신히열명내외의 학생으로 개학을하얏스나 그후점차학생의수가 놉기를 시작하야 현재오십이명이 통학중인데 그남어지의 학생들은 긔약하얏든바의 목뎍은 한아도일운것이업시 다만공부만못한것을 통분히녁이는동시에 최초문뎨의 인물인 라씨(羅氏)를

면회하고 무삼말이라도 한번하야보고 엇더케한다는 생각으로 지난이십이일 오후네시부터 약오십여명학생은 학교에 일으러 라씨를 면회코저하얏스나 라씨는홍엽간곳을 몰으게되얏다 여러학생들은 할일업시학교들에서 밤열시경ᄭᅡ지 방황하다가 하여지고말엇는데 량편의태도는 너무과도하야 일편으로 탈선뎍 행동이나 잇지아니할가 념려이며 학교측의태도는 일뎡하야 변치안을모양인데 학생들이나 ᄯᅩ는학부형측에서는깁히반성할필요도 업지아니하다더라(평양)

平壤電車殺人

이십삼일오전에

지난이십삼일 오전 열시십분경 평양부신창리(平壤府新倉里)에서출발한뎐차는박구리(碑九里)뎐류장근처에서 로파한명을 치어 크게소란을 일으키엿는데 권긔로파는 곳텬일의원(天一醫院)에서응급치료를 행하얏스나 머리와 기타여러곳에 중상을당하엿슴으로 약사십분후에 사망하얏스며 로파는박구리 배영환(裵永煥)의모친로씨(盧氏)(六三)이라더라(평양)

車輪觸傷二件

개성과룡산서

재작이십삼일오전구시경에경의 …… 렬차가 개성(開城)뎡거장에 도착될시에 …… 은 바퀴에 치어서오른편팔 ᄶᅡ며리에 상처를바닷스나 생명에는 관계가업겟스며 동일오후 …… 룡산역에서도화물자를 정리중 역부 …… 이차바퀴에치어서 오른손이 …… 즉시텰도병원에입원케하얏는데그도ᄯᅩ한생명에는관계가업다더라

渡船場에兒屍

범인을수색중이다

지난이십삼일 오전여덟시경 평양부 …… 압 도선장(渡船場)에서는 엇더한 어린아해의시톄를 발견하얏는데 나흔지는 출생후이틀이 못된 녀자이라하며 평양경찰서에서는 현장에출장하야 범인수색에 활동중이라더라(평양)

南山에서 솔을盜伐하고

두사람이잡혓다

시내황금뎡(黃金町)삼뎡목사십사번디 류명환(柳明煥)(三三)과그곳 사십번디 리춘성(李春成)(二九)의 두명은 작일오전두시경에 남산공원에서 솔나무를 몰래비히다가 들키여소관본뎡서에 인치되엿다더라

留置中에處女五日斷食

필경방면되고

시내뎡동(貞洞)에잇는 …… 원청(……)(一七)은 지난십 …… 종로경찰서에 …… 모양이러라

==모==임==

▲중앙긔독교청년회 에서는금이십오일하오세시에 신흥우(申興雨)씨가『異人과自然淘汰』라는일요강화가잇다더라

▲경성도서관 에서는금이십오일하오일곱시부터 방뎡환(方定煥)씨의동화가잇다는데 소학교학생들에게무료로방청케한다더라

◇휴지통

일전엇던운동회에서 녀학생과 기생사이에 생단배라는내ᄶᅡ담으로 …… 붕이생기자 녀학생측 부인여러분과 기생출신의 ᄶᅡ님네ᄭᅡ지 참가하야 일종의 계급전이시작되엿다 ▲담배맛기실타는 녀학생의 ᄶᅡ중으로 먹으면 엇더냐는 대답이 나오고 기생아니면 담배 안먹는다는 업시녁이는말에 기생계급의 피를끌엇다 ▲거긔다가 권에는 중재하랴든 단발미인 강향란씨의중재연설이 좀과격한결과 녀학생 열어분에게 축로가 되여서 『기생들은 가거라하는』퇴거명령이 추상가치 나렷다 ▲그러치만 일품기생의 격합을바치고드나나당々한남자에게 귀염을밧던 기생제씨가 용이히지고말리야 잇스랴 별안간 수만군중의 둘너선 한가운데에서 작々궁이가 일엇다 ▲피차의 피할는욕설은 참아 소개할수업다만은청국금하거든 기생권둔집 시앗싸옴을 가들어보시요

謹告

敬啓 昨二十三日弊會主催第四回全朝鮮蹴球大會決勝戰은競技進行上의紛糾로因하야此를中止하는不得已에至하얏슴은各參加團體와多數觀覽者諸位의게對하야弊會一同의恐惶不已하는바이오나紙上으로陳謝의意를表하오며當日未了한決勝戰의日程은追後更히布告하겟나이다

大正十二年十一月廿四日

朝鮮體育會

半個年保證

별표고무靴

京城府並木町

京城織紐株式會社

電話本局一一八九番 振替京城四一一七番

各種 時計 貴金屬 眼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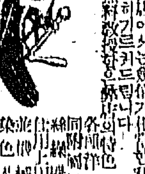
大元堂時計鋪

祛痰止咳散

거 담 지 해 산

기침약

京城太平通二丁目 慈善堂藥房 振替京城一九〇七番 金錫胤



世信洋襪所 本店

蹴球用具 野球用具 庭球用具 運動服 其他一切運動具

三光堂

毛物各種을直輸入하야大々的廉價로提供하오니愛顧하시옵

◎男風遮耳 一件

◎女風帽耳具 一件

◎女風遮具 一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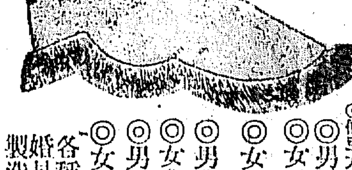
◎男背子 一件

◎女背子 一件

◎男吐手 一件

◎女吐手 一件

各種毛物 婚具禮服 製造元



京城鍾路二丁目 萬物床 主 太基德

(但地方에는代金引換)

樋口寫眞館 平壤府

李氏大同譜所

淸州韓氏宗約所

家庭副業

友榮

우리손으로製造하는(在來支那製)

唐麵 片栗

壹等百斤貳拾七圓

貳等百斤貳拾五圓

平壤製百斤貳拾四圓

廣興工廠製麵部

長電話光化門 振替京城

ClibPDF - www.fastio.com

各地選擧

振威各面選擧 十一面에百四人

京畿道振威郡各面協議員은去二十日投票한結果左記와如히當選되얏더라

◇丙南面 柳昌根、石川福藏、李河善、久原豊、林元圭、金根培、崔泰卿、安鍾哲、權鍾台、李元承(十人)

◇松炭面 洪學裕、朴樹勛、洪承赫、吳瑩永、車相建、元濟東、宋鍾烋、李鶴榮、李承鎭、鴻履(十人)

◇北面 禹鍾哲、鄭鍾近、李殷榮、梁柱元、權榮植、洪九連、姜在鶴、朴昌勛、李容範、李圭晳(十人)

◇西炭面 韓元敎、金大熙、崔承舜、趙英柱、車鍾元、金炳誠、柳貞暢、黃啓烈(八人)

◇古德面 玄永基、安在凰、吳春根、黃啓理、崔基昇、沈宜剛、文武爕、朴昌鎬、趙光喆、金學淑(十人)

◇梧城面 趙成根、權炳頤、金都培、鄭時昌、韓用直、徐圭錫、韓鶴洙、鄭志昌、韓昇鎬、金顯榮(十人)

◇靑北面 崔基玉、李圭鳳、金鶴植、梁在根、金學哲、朴承洙、金德秀、申慶休、朴士彬、朴大鎭(十人)

◇浦升面 孫相敦、李有相、崔基昇、李鐘潤、朴敎陽、李敏和、李源玉、李源緖、兪鎭圭、趙吉九(十人)

◇玄德面 孔榮烈、崔禹相、李昌秀、李敏昇、李根昶、李康浩、尹鳳漢、鄭雨範、申乾濤、林容爾(十人)

◇西面 張南鎭、元之性、姜鳳秀、張世直、安基澔、盧元章、朴世輔、方榮哉(八人)

◇芙蓉面 李德三、吳春三、朴炳壎、崔頤、李起鎬、鄭俊根、金容福、方雨哉(八人)(平澤)

◇水原 去二十日上午九時로同日下午四時外지水原面協議員選擧를當地公會堂에서擧行하얏는데有權者는朝鮮人側이百八十五人이오日本人側이百二十人中朝鮮人七人과日本人五人인바其氏名과得點數는如左

洪敏燮(三三)韓相鳳(二三)崔喜煥(二二)李漢升(二二)梁瑨寬(一九)李元善(一八)權泰東三郞(二二)田代平吉(二五)竹下平酒井政之助(二七)杉本太一郞(二四)上原陸郞(一八)(水原)

◇會寧 會寧郡會寧面에서는面協議員選擧를去二十日午前十時부터同午後三時外지會寧面事務所內에서行한바朝鮮人有權者二百八名日本人有權者一百四十名中左記諸氏가當選되얏는데其中日本人側當選協議員永井勝三君은最初日鮮人有權者間의協定으로因하야勇退하기로하고그代에朴泰源君의就任을見하리라더라

中野源太郞(三七)廣谷治太郞(三三)渡邊德重(二〇)前田政吉(二〇)白狹政吉(一九)坂井貞治(一八)永井勝三(一三)(辭退)金瑞仲(一三)兪漢洙(一三)金康治(一二)李始煌(一一)崔永頤(一一)朴泰源(九)(會寧)

◇定平春柳 咸南定平郡春柳面에서는去二十日에面協議員을選定한바當選氏名은如左

鄭道源、李東禹、李鉉台、韓容復、沈相惡、李秀永、韓秉植、韓景容、金仁燮、李鉉弼(新上)

◇南原 南原郡南原面에서는去二十一日午前九時同面事務所에有權者二百四十名이會集하야面協議員의投票選擧를한바被選된氏名은如左

魯判周、梁慶洙、時乘萬治、淸水梅太郞、魯瑛燮、崔寶宇、賴騷夏、金譜慶、明見文之進、四元七郞、橋田環、淸水惣太郞、竹田林太郞、上田象介、金熙斗、鄭應鎭、金君一、金慶淵、金錫沐、林炳玉(南原)

价川各面選擧 七面六十八人

平南价川郡의面協議員은去十九日各面에서選擧를行한結果二十日付로發表된當選者는如左

◇价川面 朴鉦雨、金永煥、洪憲潤、金華堂、金漢永、李商熙、朴士範、金白熙、金敬熙、劉熙爕(十人)

◇內東面 吳信範、吳光郁、崔炳奎、朴洛均、吳彰奎、弓利燕、高鳳文、金大潝、李成福、金奎煥(十人)

◇外東面 李滿沃、梁願環、玄景鎬、沈相烈、玄命鎬、李應鎬、朴雲緖、趙文化(八人)

◇中南面 朴憲洙、林善田、金興均、朴泳鍊、羅義直、李文院、李顯洙、李貞燮、金晩柱、玄昌植(十人)

◇中西面 卓聖夏、任齊在、金亨國、李東勳、崔揚俊、金大永、玄基道、玄淸鎬、李基炳、朴勝鑾(十人)

◇外西面 玄基薰、玄鳳基、劉乘峻、坂口俊三、金相國、林龜瑞、李承澤、劉敬濟、趙德成、李貴克(十人)

◇北面 玄先根、朴鳳瑞、朴明奎、朴燦永、金漢柱、李貞洛、李炳侃、朴經煥、吳永瓚、金斗涉(十人)(价川)

童話歌劇大會 盛況中에終了

馬山勉勵靑年會主催로童話歌劇大會를開하리라함은既報한바어니와預定의十七日은雨天임으로十九日로延期하야預定하얏든文昌禮拜堂에서本社馬山支局後援으로會長李允宰氏司會下에開하얏는데定刻이됨에昌信學校의奏樂과男女讚揚隊의合唱이有한後歌劇을行할새兒童이부른「少年金麗信」이라는劇과「金二錢」의歌劇이有하얏스며다시「산새들새」라는女子合唱이一層快感을與하야다랍하야少年少女의歌劇「빗나무달」이라는조一場의喜劇이고요히열리자電燈에故障이생기여一時混雜을이루게되얏으나다시繼續하야「봄의仙女」라는男女合唱이疲勞하얏든場內의空氣를淸新케한後讚揚隊의「내故鄕」이란合唱과少女歌劇「樂園」으로同十時半에閉會하고翌日同時間에도特히學生을爲하야前記場所에開幕하야盛況을呈하얏더라(馬山)

光州協會發起 地方中心機關

在來光州에서는一般社會事業이나敎育事業이나其他各種運動에對하야靑年會가中心이되어活動하여왓는데最近四十歲內外의人士間에光州地方各種事業을全部靑年會에一任함은事業進展上에圓滿하리라思하야議論이各方面에懸出하야十一月二十三日午前十時부터光州靑年會內에有志十五六人이會集하야相議한結果從今以後로는光州에各種重大問題가發生하는同時官廳側에對하야正當한團體를作成하야此에對함이可하다는決議를한後來十二月三日에右會의發起總會를開하기로하고趣旨書作成委員으로崔興琮、崔鍾涉、崔元淳三氏가被選되얏더라(光州)

地主覺醒顯著 四割小作料實施

全南順天郡西面에土地를둔光陽郡光陽面李殷鍾氏는過般定賭時에該面農民大會幹部를立會하고小作料는四割로調定하엿스며地稅와公課金도自己가負擔하겟다고聲明하엿슴으로該小作人은感歎不已한다더라(順天)

大邱商議評議 各任員選擧

大邱商業會議所評議員初會는既報와如히지난二十二日午後二時부터同所樓上에서開催하얏다吉田書記長으로부터人事가有한後總督府商業會議所令第十條에依하야前會頭小倉氏가議長으로登壇하야役員選擧에入하얏는대銓衡委員七人을選定하야該委員으로하야금別室에서會頭副會頭常務員等을選擧케하야그選擧한것을다시無記名式投票라形式을經한結果左의諸氏가被選되얏다

▲會頭河井朝雄▲副會頭李柄學、若林誠助▲常務員加藤一郞、李愚澄、中西彥三郞、佐藤良平、靑木重信、古田忠衛

以上과如한바常務員六人中으로부터다시會計檢査員三人을互選한結果加藤一郞、中西彥三郞、靑木重信等諸氏가被選되얏다그리고二十番君으로부터商業會議所功勞者에對한表彰問題로一時의滑稽를演하고同三時에閉會하얏는대評議員一同은因하야芳千閣에서開催하는新舊評議員懇談會에出席하얏다더라(大邱)

黃海道民大會 開催準備

黃海道內의敎育、産業、經濟等諸問題를討議하야統一한民衆的方策을樹立하고徹底한實行을期하기爲하야有志金永澤、李達元、閔丙德、鄭健裕等諸氏의發起로黃海道民大會를開催하기로하고道內各郡敎育、宗敎等諸團體와其他有志에對하야大會의開催에對한贊否의意見을求한바各郡共히大同贊同하야大會의開催를期待하는中인대大會는勿論開催될의意見이一致함으로開催時日은決定치아니하얏스나來月中旬頃이되리라하며開催地는多數意見에依하야載寧이되리라더라(載寧)

歸還同胞를爲해 歡迎會再開

全南順天西面에서는面民과面事務所와駐在所職員이聯合하야震災地로부터歸還한同胞歡迎會를開하얏다함은已報와如하거니와去十八日에該面板橋里洞民들은洞民全部가無事히歸還함을깃버하야該里三一學堂에서災還同胞를爲하야歡迎會를開催하얏는데金見斗、張斗鎬兩氏의開會辭가잇슨後에災還同胞代表黃道淵氏의答辭와感想談이잇섯스며今外지歸來치못한同胞를爲하야祈禱한後에餘興에移하야午後六時頃에散會하얏다더라(順天)

民大全州郡部 各委員選定

既報한民立大學全州地方部執行委員會는去十六日의預定을變更하야二十一日夜八達町金駿熙氏宅에서開催하얏는데出席員이二十一名이라左記任員과執行委員을增加選擧하고二十四日(土曜)午後七時西外幼稚園에서更히執行委員會를開催하야部務進行에對한諸般事項協議

▲委員長李康元▲副委員長李海晩▲會金保管委員印昌桓、李子煥、金秉淳▲監査委員金駿熙、安德賢、李圭南▲常務執行委員崔景烈、申時澈、李龍甚、朴定根、金哲▲執行委員金顯奨(本町)崔昇烈、金秉淳、李圭南、安德賢、朴斗根、尹相彩、崔一文、金永準、趙春元、朴炳益、鄭炫謨、柳在筭、李錫漢、宋吉煥、李在炯、崔永晉、宋台鉉、張炳宣、宋重燁、金夏植、李寬鎬、林儀淳、宋柱臣、金俊琰、金容海、李傑、白光子、徐貞姬、金成謨

臨時事務所는多佳町矯風會館內에設定(全州)

大同橋開通과 汽車賃割引

平壤大同橋의開通祝賀會開催에際하야滿鐵會社에서는地方來客의便宜를圖코저汽車賃을團體에는三割引個人에는二割引을하기로하얏는데割引期間은如左하다더라

新幕定州間、太平鎭南浦間、船橋里勝湖里間各驛(除簡易驛)並京城、龍山、開城、宜川、新義州、安東、兼二浦의各驛으로平壤往復期日은廿八日부터十二月一日外지(平壤)

어린이修養團組織

高興郡北門外龍臺灣에서는日昨어린이七十餘人이어린이修養團을組織하고任員을左와如히選定하얏다더라

團長朴年浩、總務崔奉雨、會計兼書記鄭文寬、文藝部長朴千壽、運動部長申休演、藝部長李完龍、顧問金澈政、李相泰、金允熙(高興)

平客南月檢穀成績

平安南道의各米穀檢査所十月中檢査成績은玄米三等二千六十六叺四等千七十六叺不合格二百三十一叺合計三千三百六十三叺白米一等二萬五千五百六十六叺二等十六叺等外五百二十六叺合計二萬六千百八叺大豆二等三叺三等四百六十二叺四等六十叺不合格十七叺合計五百四十二叺小麥三等二百十七叺合計二百十七叺이라더라(平壤)

希聖幼稚園復活乎

木浦希聖幼稚園은當地人士間에設立된지一週年이不過한今日에許多한事情에拘碍되어前途가漠然함은既히本報에도紹介한바어니와基督靑年會에서는特히此를遺憾으로思하고本會의經營下에此를維持코자去十七日午後八時臨時總會를開催하고維持方針을討議한同時左記任員을選定하얏다더라

園長金亮洙、副園長丁錫漸、財務徐和一、書記金鶴弼(木浦)

面聯合畜産品評會

慶北迎日郡畜産同業組合主催로左記面聯合畜産品評會를開催하고同日午後三時부터會場에서褒賞授與式을擧行한다더라

十一月二十六日에는浦項、兄山、延日、大松、烏川、達田六面이浦項에서、同二十七日에는興海、曲江、神光、淸河、松羅五面이興海에서、同二十八日에는杞溪、竹南、竹北三面이杞溪에서、同三十日에는滄州、東海、峯山、長鬐四面이九龍浦에서各各開催한다더라

平壤家畜市場成績

平壤家畜市場에對한十月中의出場畜牛는二千七十頭에達하야其中賣買頭數는千二百二十九頭인바牝牡의平均價格은如左하다더라

牝二歲以上前半月出場은七十一頭內賣買二十頭平均價格二十一圓五十五錢

同後半月出場百五十頭內賣買六十八頭平均價格十三圓九十一錢

牝三歲以上前半月出場百二十頭賣買五十八頭平均五十六圓五十三錢

同下半月出場三百五十頭賣買百九十頭平均價格三十二圓三十一錢

牡二歲以下前半月出場三十頭賣買十五頭平均價格十九圓六十錢

同下半月出場百五十頭賣買九十八頭平均十一圓七十錢

牡三歲以上前半月出場五百頭賣買三百八十六頭平均六十五圓五錢

同下半月出場七百頭賣買五百頭平均七十七圓五十錢(平壤)

元山에音樂大會

府內春城體育會에서는去二十日下午七時부터南村洞禮拜堂內에東西音樂大會를開催하얏는데頗히盛況을呈하얏더라

小作相助宣傳素劇

高興郡小作人相助會에서는當會趣旨를宣傳키爲하야素人劇을去十六日부터興行하야約二個月豫定으로全郡을巡回할터이라더라(高興)

宣敎二十五週紀念

元山加奈陀長老敎에서는去十七日午前十時부터廣石洞禮拜堂에서宣敎二十五週年紀念式을擧行하얏는데來會者七百餘名에達하야頗히盛況을呈하얏다더라(元山)

元山에庭球大會

元山靑年會體育部主催紅白庭球大會는申込組數五十組를紅白各二十五組에分하야去十七日부터三日間每日午後三時부터元山靑年會前코—트에서開催되야第三日인十九日午後에는細雨가降함도不拘하고白熱的競技를行한結果最後의勝利는紅軍에게歸하얏다더라(元山)

龍岡森林組合創立

既報와如히去十四日上午十時에龍岡森林組合創立總會를郡廳會議室에서開催하얏는대當日은雨天이엇스나遠近에서出席한者가二百餘名에達한盛況中에郡守金相弼氏의趣旨說明과道技師의講演이有한後順序에依하야組合定款役員選擧協議等을無事히終了하얏는데當席에서選擧된任員은如左하다더라

▲組合長龍岡郡守▲組合副長李光煥▲評議員二十六人(龍岡)

晉州家禽品評會

晉州郡畜産同業組合에서來十二月二日上午九時부터同日下午四時外지養鷄改良의目的으로第一回晋州郡家禽品評會를當地榮町公會堂敷地에서開催할터이라는데出品類는改良鷄로孵化後六個月以上을經過한者로雌雄各一首式으로하되出品期限은今月三十日外지優良者에게는一等에十圓二等에五圓三等에二圓의賞金을給與한다는데出品希望者는今月三十日外지晋州郡廳內畜産同業組合事務所에申請함이可하겟다더라(晋州)

平壤堤防工事狀況

平壤의防水堤防工事及綾羅島의水源地復舊工事의一部는目下道土木課에서工事를施하는中이요第一工區(專賣局附近)는中平里부터賑町遊廓附近外지인데工事가進捗되면十二月上旬外지는完成될터이요第二三工區는陸路里로부터賑町遊廓附近外지인데淵上組의請負로目下工事中이나土地收容의關係로完成은明年五六月頃이며五工區는賑町遊廓으로부터鐵道鐵橋下外지橋本組에서施工中인데今年內에大略完成될形便이라더라(平壤)

德川統契講習會

平安南道에서는今般管內主要各郡의統契指導者講習會를開催하는바德川郡에서는去十九日부터郡面長及郡內有力者二十餘名을會同하고講習會를開催하얏는데科目은生活改善風俗改良勤儉貯蓄衛生社會事業等이오講師는朴道參與官孔郡守嚴社會課長西衛生課長野田普通校長等인데廿一日에終了하얏더라(德川)

草梁驛客月業績

草梁驛客月業績은如左하다더라

乘車人數		六、四九九
降車人數		七、一四六
入場人數		三、八〇三
手荷物發送	有償個數	二、三八
	無償個數	五四
同 到着	有償同	三六一
	無償同	二三〇
小荷物發送同		二四〇
同 到着同		七
代金引換發送件數		二二
同 到着件數		五
客車收入		六、一三五四八一

(釜山)

船橋里電話工事

大同江對岸의船橋里는平壤의同一通話區域으로編入되얏스나道路未成으로于今遲延하얏든바該道路工事는去十七日부터着手되야平壤郵便局에서는電線의新架設에着手하얏스며來月中에는通話될듯하다더라(平壤)

群山勞働組合合同

群山에는精米籾摺勞働組合과精米勞働組合의兩團體間에荷物運搬等의爭奪로因하야互相軋轢을일삼아昨年以來로各組合員間의爭鬪가一二에不止하얏슴으로有志者들은此를遺憾으로思하야其中間에서調停을試하얏스나其效를奏치못하얏더니今般李世煥氏의斡旋으로從來의感情을一掃하고兩組合을合同하야名稱을精米籾摺共働組合이라改稱하고任員을左와如히改選하얏다더라

▲組長李世煥▲副組長車周相▲專務崔慶都▲總務朴明晳、金俊成、金吉斗▲監督申斗炳、韓德祐、朴鏞學▲理事崔永植、申相辰、金聖振▲會計姜明俊▲書記河濟金▲評議員朴采和外三十人(群山)

少年自强會創立

十一月十日午後二時에慶北迎日郡斗湖里에서學生四十九名이會集하야少年自强會를組織하엿는데臨時會長崔英植氏의司會下에本洞區長李昊道氏와本洞普明學校敎員朴明五氏의祝辭가有한後에會則을通過하고德智體三部를設하야五種의運動을練習키로하엿스며當選된任員은如左하다더라

會長崔英植、總務李昊俊、德育部長朴仁德、智育部長李相鎬、體育部長崔極浩、財務方周淳、書記崔長浩(浦項)

曙南夜學會引繼

全州瞬町에在한曙南夜學會는李海晩氏의單獨經營으로昨年十二月中에設立하야以來一年間許多한困難을經하며繼續中今般靑年會에서는夜學을經營함에當하야李海晩氏는靑年會副會長인關係上互相協議되야五十餘名生徒와其他全部를靑年會에引繼하엿다더라(全州)

濟州에庭球大會

濟州靑年會主催와濟州面鸚潭里少年敎膝會主催와濟州靑年修養會와本社濟州支局後援下에今二十五日午前九時부터同會코트에서庭球大會를開할터이라더라(濟州)

●엑쓰光線使用 平壤市內의私設醫院은日人과朝鮮人을勿論하고엑쓰光線을利用하는機械의設備가無하야不便이甚할뿐아니라조금만重한患者는取扱을하지못하얏는데平壤鐵道醫院에서는去夏부터此를設備하고患者診察에使用하는바成績이良好하다더라(平壤)

各地靑年團體

濟州靑年會組織

濟州島濟州面二徒里二區에서는今般當里有志金蒼龍、徐敏錫、文斗淡、金蒼寬、安應進外諸氏의發起로靑年親睦會를組織하얏는데그目的은「德育、智育、體育、社交、矯風、産業을向上發展케함」이라하며任員은如左하다더라

▲會長徐敏錫▲副會長金蒼寬▲總務徐琰淑▲幹事金見律(以下略)(濟州)

仁川엡윗通常會

仁川男子엡윗靑年會에서는既報와如히去二十二日下午七時에內里永化學校에서通常會를開하고左記議案을決定後同九時頃에散會하얏다더라

一、元엡윗靑年會規則에依하야男女會員을統一할件은女子部의同意만有하면卽時實行할事

一、若前項이成立되지못하면從前대로進行하되來十二月總會를明하야諸般會務를大革新하고務實力行의實績을圖할事

一、前記二項實行은任員會에一任할事(仁川)

昆陽靑年會近況

慶南昆陽靑年會는創立한지四個星霜을經한今日에過去의醋風烈雨를鬪하며會員及幹部諸氏의熱誠으로會務의發展을圖한結果現今同會의經營인夜學男女學生이二百餘名이라特히今春統營有志金永台氏의特志로土地千有餘坪을該學生의實習地에提供하얏슴으로同會幹部는氏의厚意를感謝한다더라(昆陽)

高興音樂會組織

高興靑年三十人으로서組織된蘭菊契에서는本來音樂을奬勵하야오든바今秋부터는新音樂을奬勵하기爲하야名稱을新音樂會라改稱하고契錢百四十圓과同會員諸氏의義捐金으로洋樂五人組를注文하고新入會員을募集한다는데會金은五圓이라하며任員은左와如하다더라

會長朴亨淳、副會長李鉦斗、會計兼書記孫瑞根、申相景(高興)

仁川女靑年通常會

仁川女子엡윗靑年會에서는昨二十四日(土曜)下午七時부터內里禮拜堂에서通常會를開하고一般會務를處理하얏다더라(仁川)

商況

休日前阪地는前場初付少高八十八錢이라傳하니硬軍의攻勢化로始하니▲第一節 當中兩限은다不成에先限은阪地初付前日半價에比하야三十四圓五十錢에始하야五節外지猛烈한으로四十六錢外지高步되얏나阪地四節七十九錢이라當地五十錢에外利支하다가六節에二十七錢이라前日最高價보다도三錢이라硬軍의防禦와破一部의急氣一向旺盛하니始價八圓九十五錢外지散步하얏스나更進二十錢에始하야一文을低價로八節...▲第五節 當中兩限은亦不成에先限은硬性을帶한守勢로九圓十錢外지高步로十九錢에止하다

初付	二十八圓八十錢
止價	二十八圓一錢
高價	二十九圓二十八錢
五節	二十九圓十五錢
六節	二十九圓二十一錢
七節	二十九圓一錢

同日後場

二節	二十九圓二十一錢
三節	二十九圓二十四錢
四節	二十九圓二十八錢
五節	二十九圓三十五錢

天氣 日出 上午七時二十分 日入 下午五時十九分

當選謝禮
今般全州面協議員選擧에際하야有權者諸氏의深厚하신同情에依하야當選의榮을得하온바感謝不堪이와茲에紙上으로謝意를表하나이다
大正十二年十一月二十日
崔昇烈

當選謝禮
今般全州面協議員選擧에際하야有權者諸氏의深厚하신同情에依하야當選의榮을得하온바感謝不堪이와茲에紙上으로謝意를表하나이다
大正十二年十一月二十日
金秉淳

當選謝禮
今般全州面協議員選擧에際하야有權者諸氏의深厚하신同情에依하야當選의榮을得하온바感謝不堪이와茲에紙上으로謝意를表하나이다
大正十二年十一月二十日
李海晩

當選謝禮
今般全州面協議員選擧에際하야有權者諸氏의深厚하신同情에依하야當選의榮을得하온바感謝不堪이와茲에紙上으로謝意를表하나이다
大正十二年十一月二十日
印昌桓

當選謝禮
今回江景面協議員選擧에際하야有權者諸氏의深厚하신同情에因하와當選의榮을得하왓사오니感謝不堪이기茲에紙上으로謝意를表하나이다
朴齊元

當選謝禮
今回江景面協議員選擧에際하야有權者諸氏의深厚하신同情에因하와當選의榮을得하왓사오니感謝不堪이기茲에紙上으로謝意를表하나이다
車斗轍

火災中에奇蹟的으로獨히住友倉庫에남아잇는寒冷不知의極上等毛布三萬組의處分放賣(但向一週間)

非常特別安値賣出

輸出毛布殘品二枚掛 甲二圓五十錢 乙三圓
珍柄子供毛布 並 一圓八十錢 毛 三圓
改良鼠毛布二枚綴 甲四圓 乙三圓
改良茶毛布二枚綴 甲三圓五十錢
改良白毛布二枚綴 甲四圓八十錢
上等赤毛布二枚綴 甲六圓
羊白毛布二枚綴 甲二十五圓
羊茶鼠毛布二枚綴 甲二十一圓
라라毛布二枚綴 甲十九圓
衣服裏地用羊赤無地約五十야ー루 定價一야ー루二圓五十錢也 以上은모다市價보다三五割安價保證責任付의品인바買求하신後라도安價의觸言에反하는時는返金하던지他品을交換하던지自由任意로함(遠方에는代金引換小包로附送함)

元東京市日本橋區本石町一丁目
現東京市京橋際第一相互館三階
毛織物問屋關谷商店

銀行員諸君에게忠告함

星言生

一

吾人은熱誠을다하야朝鮮人銀行員諸君에게忠告코자하노라 諸君이여! 諸君은적어도朝鮮中流以上의紳士階級이오 中間階級으로自他가認定하며 諸君이적어도朝鮮産業界의興亡의鍵을掌中에잡앗다自任하는諸君이다

眞實로銀行家의使命은重且大하니現代信用經濟의時代에處한資本主義的企業의一大産物일뿐外라銀行業의健全한活動을離하고는一日이라도現代的企業을經營할수업스며 殖産興業의進步를期待할수업도다 獨逸經濟學者『콘라―드』(Conrad)博士는銀行이經濟社會에處한地位를說明하야曰『現代의銀行의使命은此를人體의血液循環을旺盛히식히는心臟과如하다』하얏나니 가장適當한比喩라信한다 故로銀行의存在는重大타아니할수업스며 따라서此에從事하는者는社會一般으로부터 相當한尊敬(?)을受하며其地位를羨望하는者多함은歐米各國의通有한事이라

二

故로此業에從事하는者를他商工業에從事하는者에比하면 大槪比較的優秀한人物이多하며業務에有한人物이多하다한다

朝鮮人銀行業者諸君이여! 君等이其經營하는바事業이上述함과如히重大하며諸君의地位가上述과如히重要한地位에在하다하면 果然諸君中에朝鮮의産業界를善導할優秀한人格者가幾人이나有하며 銀行員으로서의充分한素養이有한者幾人이나有한가? 吾人은諸君中의極小部分을除한大多數의諸君이吾人의期待에不及함이너무나大함을遺憾히녁이노라 諸君이여! 良心에問하라 반다시良心의소근거리는自白을聞하리라

諸君이여! 諸君의努力은諸君의向上을意味하며 銀行의發展을招致할지오 大히는朝鮮産業界의 隆盛을呈할 가장큰原因의一이될지라 故로朝鮮의産業界는君等의偉大한努力을切望하며 君等의偉大한人格의向上을要求하나니 諸君이여社會가諸君에向한囑望이얼마나重且大함을知乎아 諸君의反省을要하노라

三

現今朝鮮人經營의銀行의內部를觀하라 이는銀行이重役의救濟院의感이無한者有한가 따라서諸君이 다相當한素養과相當한人格의所有者됨을要求할수업슴은 明若觀火라 故로諸君에게多大한希望은아니한다 그러나諸君의向上心의缺乏과研究心의不足을愛惜히녁이노라 吾人은諸君의學校出身者됨을要望치아니한다 然이나諸君의不斷의向上心과 不絕의硏究力을다하야 各個人이 다高等程度의銀行家다운銀行員에少許라도努力하기를望한다 諸君이入行時에所謂古參者에게得한簡易한帳簿記入法外에 더進하야研究한바가有한가 所謂十有餘年의銀行生活을하야온者라도 每日機械的으로行하는行務以外에는 비록銀行에關聯한者이라도大槪不知의形便이라 적어도自己가從事하는바事業에關聯한事는常識的으로라도知得할必要가有하다生覺치아니하는가

四

諸君이여! 君等이大路를行步할時君等이참으로밟는바地面의幅이果然얼마나되든가『不過一尺의幅이못된다』그러타고서 맛諸君의步行하는바路面이一尺의幅만有하고左右로路面이無하며 數千尺의谿谷이有하다하면 諸君은아모危險도업시 恐怖心도업시 坦々然히活步로進行함을得할가 吾人이完全한人格者의生活을하는데에는日常에必要한一定한智識以外에日常에必要치아니하는智識即『無用의知識』이有하여야만完全한人格者의生活을成할수잇다斷言한다 諸君이여! 智識은姑捨하고 必修의常識이나마 좀더研究하기를望한다

諸君이每日內外술집에出入하는餘暇에 술먹기내기나煙草내기로突치는閑暇에 銀行論을讀하며 手形法을研究하며 修養書를되려다보라 더욱이잇거든經濟論을읽으며財政學을읽으며外國語를工夫하라 그리하야諸君의向上을圖하며業務의能率을으로이더먹은料理맛이야기가아

五

諸君이다니는銀行에는大槪數種의新聞과雜誌를備置하얏다 그러나諸君中에는其新聞과雜誌를閱覽하는者不過幾人이나마 誠實히보는者不過幾人이라니 엇지諸君의常識의缺乏을責치아니하리오

諸君은生命이無한機械이며機械가되려고努力한다 都是가機械的이다 諸君은그나마不完全한故障만흔機械이다 諸君의經營하는바銀行은十年前의그것과十年後의今日의그것과比較하야 아모進步도업스며 아모變化도업다

諸君에게는權威잇는新學理도아모所用이업스며 能率問題는都是想像外로다 然이나吾人은諸君이다完全한銀行智識의豊富한人物되기를要望할수업다 다만諸君이研究하겟다는即아라보겟다는努力을切望한다 諸君이여不斷의努力은完全한結果를得하는故이라

六

諸君이여! 試驗次로日本人經營의銀行을一覽하고北村으로드러서朝鮮人市街의所謂代表的銀行이라自稱하는銀行에드러가보아라 諸君의耳目에는其差異가果然如何하든가? 事務의敏捷이그들만하며親切叮嚀이그들만한가?. 諸君의常識의不足 秩序의不整 親切의缺乏 遲延加之傲慢이 去來人에게如何한好感을주든가

第一門內에드러가면서 直覺的으로感하는바는異樣의喧噪聲이라 엇지도그리요란한고? 此가日本人銀行에比較하야營業의繁昌함을意味하나? 君等이去來先을압헤노코 傍若無人히 이야기함은大部分이 그前夜에 多幸히不正去來先이나맛나 卒으로이더먹은料理맛이야기가아니면 담배내기가大部分이다 加之給仕, 小使를大聲叱呼하는聲! 이야말로서로말다툼하는聲! 아! 去來先의胸中에如何한感想이生할가? 同族의뜨거운피가걸니지아니하고 同胞의相扶心이無하얏던들 누구가질겨서 君等의銀行에貴重한財産을去來코자할가? 然而諸君의經營하는바銀行의成績이日本人經營의그것만못함을恨嘆하며 預金吸收가그만못함을憂慮하는가? 吾人은諸君의厚顏을疑訝하며 天眞으로도리혀귀하녀기노라 諸君이여 醒醒하라

七

朝鮮人이一般的으로虛榮心이多함은否認치못할現象이라 然이나銀行員의虛榮心의偉大함을무엇이라形言하리오 近年에頻々한銀行員犯罪事件은大部分此에基因하얏다하노라 諸君은비록月賦이나마華麗한洋服과洋靴를신엇스며 外上이나마얼근히醉한醜態를每日街路上에現하며 심々풀이이나마 妓生家에出入한다 吾人은君等의每月受하는月收의程度를知한다 諸君의目前에燦爛한他人의金錢을自己의손으로取扱할時에君等은每月收得하는月給額을忘却하는엇던過分感을感하지아니하나? 此가君等의無修養無定見과더부러可恐할墮落과犯罪에싸지는바原因이안인가 今年以來의各銀行々員의犯罪를見하라 外部에發表된것만하야도各銀行을合하야 數十件이라 況有耶無耶에發表되지아니한事幾何이뇨? 然而諸君은銀行의信用이薄弱함을悲觀하는가? 自重하라

八

近者銀行犯罪者의統計를見할진대大部分이給仕出身의行員이라한다 是가若事實이면 一般給仕의多數前途有爲의靑年의胸中에異樣의惡影을與할지며 多數給仕出身인行員에게無常한不快를與할지니 吾人은銀行當局者의一考를要한다 此等少年을有爲의人物로養成하기를切望한다 即周到한敎養과 親切한指導가 必要할지라 鮮銀에서는給仕는바 다시 夜學을단이며 支拂한다한다 何如間主義를有한銀行員으로서의方法이라思한다 或은時々로修養談等을들녀줌도조흘줄로思한다 (行員諸氏에게도必要) 何如間能率이高한사람다운人物을養成키를切望한다

九

顧하노니 諸君이여! 좀더自重하라 좀더覺醒하라 然而諸君의雙肩에朝鮮産業界의指導者라는重任을負하겟다는人格者가될가를憂慮하라 其方法이如何? 前途가洋々한年少銀行員은其將來가實로虎도될지라 可히서龍도될지며 可히多大한期待를付하나 한가지問題는自稱自高하는所謂高級行員들이라 諸君의苦疾은 임이慢性이로다 重役階級에對한極度의阿諛 下級行員에對한傲慢 去來先에對한狡猾은諸君의所知가何오?

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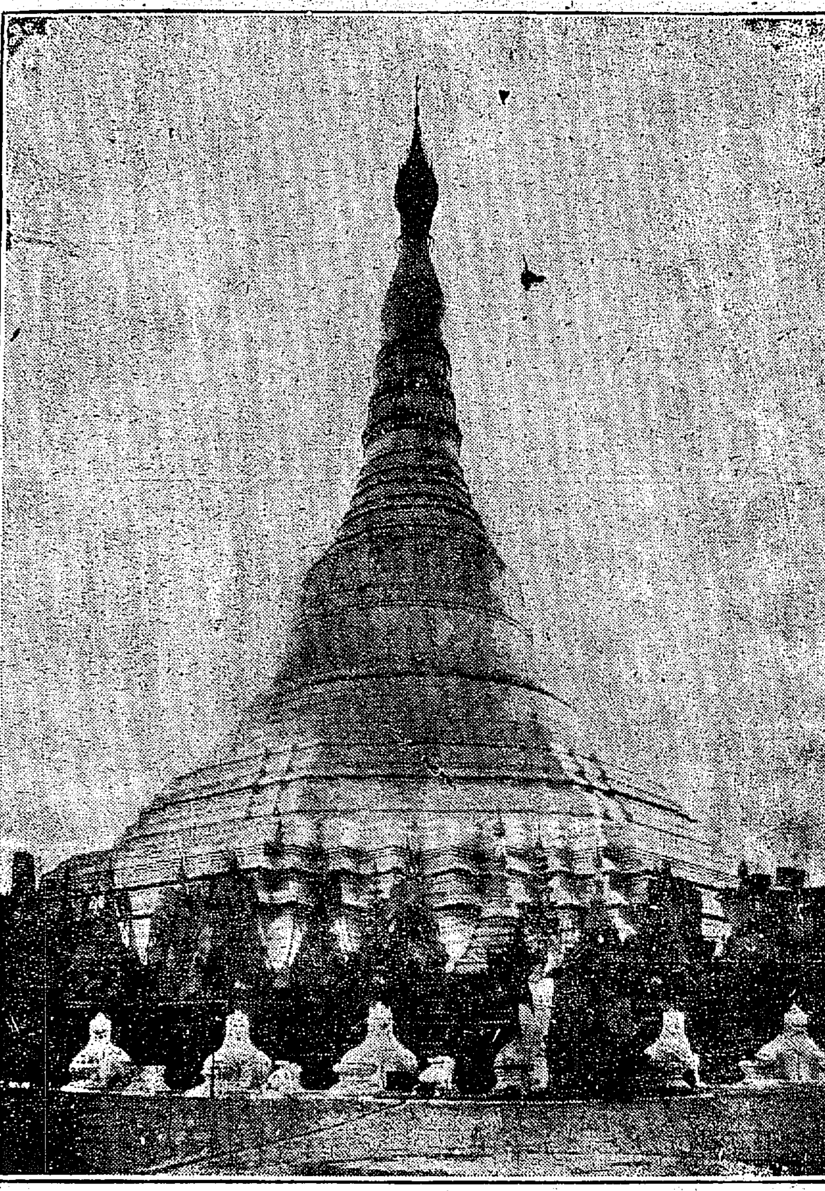
諸君이여! 修養할餘暇가無다云치마라 研究할機關이無다云치마라 諸君에게는 上述과如히 내기할時間과 술먹을時間이有하지아니한가? 京城圖書館이開館以後에向上의熱血이充滿한青年으로每日滿員의盛況을呈하나只今것 銀行員의入館은眞實로極히稀少하다한다 諸君이여! 吾人은赤誠을다하야諸君의참된覺醒과自重과 研究와努力을祈하며諸君의益々健全을祝한다 吾人은諸君中에참으로偉大한人格者와 名實이相伴하는有爲의銀行員이多數有하기를確信하며同時에上述에近한事가諸君中에少數이기를切望한다 萬一右記中事實이違反되는것이有하면吾人은언제든지諸氏에게謝罪의勞를避치아니하리라

(一九二三, 一一, 一五)

緬甸國에잇는世界第一의純金塔

世界驚異

緬甸國랭군市에「스위이다곤」塔은現代七驚異의一이된다한다高는三百六十八尺이며外部는全혀純金을蓋하엿고塔上에는四千六百個의金剛石綠寶石紅寶石의裝飾이잇스며塔底에는釋迦如來의頭髮四毛를密藏하엿다塔臨의面積이二千七百方尺인대鍍金費用이三萬六千七百十二磅으로每三十年一次式擧行하나古代에는純金을蓋하엿고現今도塔의下部는純金을蓋하얏다鍍金은風磨雨洗하야上部外形은年來에過潔을失하엿다



大杉榮의獄中記(續)

별안간에된벙어리

나는나오든날하로는盛히獄中일을짓거리엇는데그이튼날부터는全혀벙어리가된것가치거의말이안나온다 二年餘동안거의無言의行動을한外닭인지出獄하야不意에生活이變한刺戟의外닭인지何如間본대부터잇든말더듬는증이急히甚하게되여더듬는다고하지못할만콤가장甚하게되엿다

그래서그後조一個月間쯤은거의筆談으로지냇다집에잇든지밧게나가다니든지『노트』(雜記帳)와鉛筆을노흔일이업다

『말아듯습닛가』

하는말을잘들엇스나勿論귀에는아모상관이업다 그래서도모르는사람은내가『노트』에무엇이든지써서내밀음으로커便에서도그와가치『노트』에對答을써서주는이도잇셧다 이것은나뿐아니다 非從不敬事件으로一年쯤드러가잇든同伴中한사람도亦是말을더듬거리엇는데 나온이튼날부터거의벙어리가되여버려서亦是나와가치一個月間이나筆談으로지내고잇섯다

밥만은入獄한德分

또多少卑劣한말이지만 出獄하기조금前에는『나가거던무엇을먹으리라 커피것을먹으리라』하는計畫으로精神업게된다 그리나出獄하야보면거의무엇을먹든지限업시맛나다

爲先만난것은흰밥이다 米飯을다른사람과가치눈을내면그흰빗이 입에넛는다 니(齒)가맛쏜다 치비단방석우에나노이는듯이心氣가좃코부드러운中에못치는同時에强烈한단(甘)맛이혀(舌)끗헤퍼지는것가치쏘다진다 이흰밥이더所用업다 그외에는아모것도아면고만이다

『그것을생각하기始作하면아모려도獄에드러가는것은고만둘수가업다』

前科者(志가잘―出獄當時의追憶談을하면서 이럿케이약이하는것은前科者가아니고는到底히맛볼수업다(前獄中記終)

어대로갈가?

春城

어대로갈가?
오? 어대로갈가?
오! 어대로갈가?
썹덕이魂을손이몸을살고
푸른재(灰)만온몸에팔삭〳〵나
『삶』의봉앗이모다스러저
는
오? 나는임이죽은屍體다
『삶』을歡紅色花瓣으로얼어노코
가는비단실로緋노흐며
온몸의피가떠근〳〵하야
『人生은피여오는구름가치
아름답고어엽부니라
無限한압길에오는압날에
모든幸福을盛氣擬가치엿보자
오? 생각만해도즐거운祝福의靑
春!』
이처름생각하든꿈이
그어느날아참에쎄여진쌔로부래
오! 이제는모든것을보앗다
웃과비단으로緋노흔
그가치어엽분『삶』이라는것은
『死』의祭壇에불살우기위하야
쇠사실에얼키여가는山羊으로써
잇다금정신업시비아다내는
한두마리의잠고대인것을…
오! 나는임의죽은屍體다
붉은무지개에가만히누어
愛의甘酒를甁으로마시고
하날의별들을두손으로따면서
『꽃타는이눈물을받아주서요!
나는당신의품에서永遠히〳〵
삶과죽음을가치하오리라』
이러한그의말을참이라밋든나의
가삼이
그어느날아참에쎄여진쌔로부러
오! 이제는모든것을알앗다
물타는눈물을치마에담고
『참이라참이라』
하늘을가르치고따를치면서
피를비아다맹서하든사랑이
한개의『거짓』을가만히숨겨두운
회칠한무덤의裝飾이엇든것을
오! 그러면어대로갈가?
삶의힘줄이모다끄러지고
사람의밋음이조박〳〵쌔여진이
머리에검은褓를쓰고누운
살고도죽은이屍體를살고
오! 어대로갈가?
어대로갈가?

地方童謠欄

咸陽流行童謠　權赫常

케석넘네 못딸아기
하잘낫다 소문듯고
못딸아기 보려하고
산골중놈 나려갈케
소년한봄 올나오네
서방님은 오신닛가
어데갓다 못딸아기
케석넘네 소문듯고
하잘낫다 서서삽년
안자삽년 보려해도
두삽년을 가노라
못보고 못보서도
서방님은 보오리다
소승가서 못보오면
소승가서 집에가서
서방님의 하오리다
드난삽년 보고오면
소승잇는 뭄에와서
스승잇는 사라주소
⋮
케석넘네 못딸아기
차잡차잡 차자가서
첫대문에 드러서며
둘재대문 거러노코
셋재대문 드러가서
바랑버서 거러노코
넷재대문 드러가서
바랑버서 세와노코
넷재대문 드러가서
목탁한번 치는구나
동량왓소 몽랑왓소
동량이사 동랑왓소
주리업서 잇지마는
대감님은 못주겟다
산권구경 오되갓소
마나레는 가섯다
산수풀경 오되갓소
서방님은 가섯다
서울공부 가섯다
새아씨는 오되갓소
공단비단 쏴로갓다
무장금이 오되갓소
무장금이 빨내갓다
금상금이 오되갓소
금상금이 빨내갓다
⋮
무상금이 주는동량
금상금이 주는동량
아니밧고 내가겟소
커자아지 주는동량
만이주면 한합이고
작기주면 반합이요
⋮
무상금이 압세우고
금상금이 뒤세우고
세대삿갓 수겨쓰고
동량가커 오신단다
산골중놈 거동보소
동량들낭 아니밧고
홍목부러 쥐는구나
아달아기 나커시든
대권금을 지어주고
딸아기를 나커시든
수문상을 지어주소
하속하고 도라갓다
⋮
중가고난 척달만에
아실아실 차부면서
새알줌이 주이면서
물에는 물내나고
장에는 장내나고
밤에는 문내나고
아랍밧게 나는허리
아랍안에 드는구나
주먹밧게 나든훌목
주먹안에 드는구나
⋮
울아바님 하는말삼
딸의방에 중내나비
울어마님 하는말삼
딸의방에 중내나비
올아바니 하는말삼
동생방에 중내나비
하릴업는 친락수라

陜水地方處女들이부르는童謠　郭恩德

一

하날에다 베틀놋코 구름잡아
잉어걸고 어엿싸다 지앙짓새
신선에다 북을메고 한사쪽사
하는구나 모읍기세 틈주는양
착이업는 외기럭이 나라곡식
우에씩린다시 쏴쌍구 부바되
에 참각〳〵 싼이란세 난매와
는 손이와서 우리동무 낙기
간다

二

아젼의관숙 젊렁뒤에 쇠뚜한
쌍 신엇더니 수집이가 물음
주어 使命한雙 가지벌려 아
권한쌍 입피々여 기생한쌍
뭇치피여 쭝이한쌍 봉지되여
원님아들 원선이카 맛좃라고
다써묵고 빗좃라고 다써묵네

무상금이 압서거라
금상금이 뒤서거라
세대삿갓 수겨쓰고
차자차잡 차자가니
산골중놈 뻑나선다
상자한쌍 게시느냐
느그신님 게시느냐
⋮
신님신님 일어나소
너손이와 찻습니다
머리이뉴 요망하다
속간에 너손이
남자지리 업는니라
⋮
사자더리 하는말이
봉봉중이 끈다한불
무슨잠옴 지허드나
중놈의 기둥보소
기지개를 봉선쎠며
벗그로 나와서
듯아레 나려와서
너손의 손옷잡고
이리옴들 아막드면
안방방은 쓰데개이
곰체삽간 지어노코
뒤범방은 쓰데개어
행랑삽간 안침거슬
소승입븐 자삽는낭
쪽々이 쓰데개어
아기꼬데 누운거슬
소승칩혼 자지는
와자단 싸질더서
부지생이 만튼거슬
목타은 싸엽개서
장쑥자 만튼거슬
밥시기도 엄에닷죽
죽시기도 엄에닷죽
낫낫치 예리세이
요강대와 만튼거슬
아홉방 넘베드리
아홉방 상자드라
네갈데로 다가거리
마음삽럽 사라보자

大成中學寄金寄附人士芳名錄

間島大成中學校는在滿同胞가設立한有數한教育機關인바近年向上하는教育熱에順應하기爲하야大擴張을企圖하나經營의不足으로如意치못하야在內同胞의同情을廣求하든바昨今兩年에亘하야朝鮮內地의人士로該校를爲하야寄附한芳名은左와如하더라

▲金五百圓式 吳東準, 閔泳徽
▲金三百圓式 張吉相, 孫昌源, 尹德榮
▲金二百圓式 李達鎔, 漢城銀行, 尹致昊, 閔丙奭
▲百五十圓 閔大植
▲金百二十圓 白寅基
▲金百圓式 韓相龍, 朴泳孝, 金容鎭, 韓一銀行, 商業銀行, 朝鮮日報社, 閔廷植, 韓亮鎬, 金潤錫, 閔泳達, 尹容植, 李海昇, 張澤相
▲金九十圓 金聲鎬
▲金七十圓 金大熙
▲金六十圓 李東鎬
▲金五十圓式 池松旭, 閔丙承, 朝鮮國際株式會社, 金漢奎, 金[illegible], 京城紡織株式會社, [illegible], 李相鎬, 閔泳瓚, 金[illegible], [illegible]
▲金四十圓 金東圭
▲金三十圓式 宋鎭禹, 高元勳, 李[illegible], 金[illegible], [illegible]
▲金二十五圓式 宋[illegible], 金元[illegible]
▲金二十四圓十錢 [illegible]
▲金二十圓式 金[illegible], 林[illegible], 李[illegible], [illegible]
▲金十五圓式 金[illegible], [illegible]
▲金十圓式 李[illegible], 尹[illegible], [illegible]
▲金五圓式 金[illegible], 金東[illegible], [illegible]
▲金四圓式 李[illegible], [illegible]
▲金三圓式 李[illegible], [illegible]
▲金二圓二十錢 柳[illegible]
▲金二圓式 [illegible]
▲金八圓 李東九
▲金七圓 沈宜甲

讀者慰安文藝會

時日 十一月二十六日午後七時
場所 馬山文昌禮拜堂

◇科目◇
讀詩 新詩、漢詩、中國白話詩
小說 創作短篇、童話
歌曲 솔로、쿼텟、日本歌、코러스
素人劇 詩劇、歌劇
講話 文藝와人生

◎入場料
東亞日報讀者以外
二十錢均一

主催 東亞日報馬山支局 馬山勉勵青年會

鼻耳內服藥 지구노―루
蓄膿症…肥厚性鼻炎
鼻
山岸天佑堂

赤毛染 ナイス から
빗이나 태이나 더할말이업는 수염의白髮黑染은 나이스가第一
發賣元 丹平商會
全國藥店에잇소

十一月二十一日(水曜)부터
독쿨、마부세
朝鮮劇場
電話光化門九八四番

十一月二十一日(水曜)부터
나를꼿차
侵入者
바다저쪽에
英雄깃드
團成社
京城授恩洞
電話光九五九

職業 三圓
豊國總本店

醫學上으로본朝鮮人의衣食住(十)

세부란스病院醫師 申弼浩

(四)특별히아해들에게대하야절긔를쫏차의복에주의할일

일긔의 더웁고치운것을 쫏차의복도다르고 입는것도 다르게되는것이라 여름가튼때는 간단히말하면 의복이업서도 살수잇다고할만하며 겨울에는 아모조록더운의복을 찻는것이외다 어른들은 자긔가자긔의몸을 생각하야 여름이라도 몸에불편한 일이잇스면 옷을더처입고 겨울이라도 더우면버서놋키도하나 아모말도못하고 자긔의마음에 잇는뜻을 다른사람의게 잘알게못하는 어린아해들은 의、식、주를다 어룬만의지하고사는고로 아해를 기르는사람은반다시 깁히주의 하여야하나니 비록녀름과가치 더운때라도 덥당하게의복을만드러 입혀어서 해빗을살에즉접빗지안토록 할지며 밤에잘때라도 배가튼튼할 가리워서재야하나니 그런치아니하면 배속에병이나서 설사를 만히하게되는일이 각금만흔것 이올시다 녀름가튼때에 어느곳을 가보면아해들이 옷은아모것도 몸에걸친것업고 낫마다해빗을 쏘이기만하야 몸은오동빗이되면서 쉽사질은 잇다금하는고로 얼골이누나 외국사람들이보면 사람으로생각지아니하기가 쉬웁니다 더케뻣서 다니는것을 잘볼수잇나니 이런것은누구의권고를 드를필요도업시 어서속히 개량하여야합니다 우리들은 하도만히보아서 심상하게볼는지도 모르나 외국사람들이보면 사람으로생각지아니하기가 쉬웁니다 이우에는 녀름에대한 이야기이는 더욱주의하여야하나니 우리나라속담에 아해는『염통』즉더운몸이라하야 방안에서도 넉々하에재우고 옷을입혀여도 찬곳게입하지 안는풍속이잇스니 이런풍속은 한로밧비업시하는것이 조흘줄아나이다 더개아해의몸은 어룬과달나서 무슨병에든지 견대는힘이 약한고로 의복을항상넉々하게 입혀어 감긔를들고걸녀에도 방안에서입고 잇든것외에 다른두터운옷을 더입혀고 그우에 두터운포대기 가튼것으로 싸가지고단녀야 할것인데더개보면 물론의복을 더입히기는커녕 넉々하게입혀자 안코그냥 포대기로싸업고 도라다니나니 그리하면 아해는 치위를익이지못하야 말못하는대신에 작고울기만하면 이것을 아지못하는어룬은 쓸데업시 젓만먹임으로 또한음식에체하게되야 고생할뿐아니라 감긔가들어서 삼사일지내다가 병이쇠하야 허파에병이붓게되면 고만아모리 귀하게생각하든 아해라도 길을수업게되는일이 생기나니 우리나라아해들이 그부모의 부주의로겨울동안에 감긔가덧치어서 죽는것이 얼마인지수를헤일수도 업슬줄아나이다 그런고로 마지막두어말 하고자하는것은 지금일긔는차々치워지는때아이들기르시는분은 특히아해의 옷을주의하야입히고 어데가실때 잇스면할수잇는데까지는 아해들을다리고 다니시지말고 부득이갈일이잇스면옷을넉々히입혀어감긔들지안토록하시기를바라나이다

讀者文壇

童話 붉은딸기쏫

晧堂 延星欽

굴고도 길다란나무가 욱어진산속에 옵바와 누의동생들이 살엇습니다 옵바의일홈은 명호이고 누의동생의 일홈은 명순이엿습니다 그들의게는사랑하여 주실아바지도 어머니도 아모도업섯습니다 둘이는 오막사리초가집에서 외롭게지냇습니다 그럿치만두남매는 대단히 의가조왓습니다 명호는언케든지 아츰일즉이일어나서 산으로 나무하러나갑니다 그래서커녁께 첩々히느러선나무우에 조고마한 푸른한개별이 반작〳〵할써쯤하야서다시집으로 도라옵니다 그리면두남매는 한자리에안커 그리조흔음식은 아니지만 맛잇게써득한커녁을먹습니다 어느날 커녁이엿습니다 그날은웬일인지 그옵바는늣도록 도라오지 안앗습니다 커무러가는산속 하늘우에는 어느름에큰별이 둘이나반작이고잇습니다『참말 오늘은웬인가』명순의 적은가삼은 두근거리기 시작햇습니다『아! 이케는 아조안되엿고나』어린명순은 기다리다못해서 랑프에불을켯습니다 숩속에서는 올뻼이가울고잇습니다『아이구감々해』명순은 문밧게나와 보앗습니다 길々이 드려선나무우에는 별써 별이반작이고 잇습니다 어듸로선지 또올뻼이가웁니다 명순은할일업시 방으로드러가서 듣창문을다덧습니다 그리고또다시문밧그로나왓습니다 별서별은 넷다섯여섯일곱……자되잔모래와가치반짝이고잇습니다『옵바』어린명순은떨니는목소리로이럿케크게불너보앗습니다 또어듸로선지 올뻼이의 우는소리가 들녓습니다 별안간건넌편숩속에서 사람의소리가 들녓습니다 아!그것은기다리고기다리든옵바의목소리엿습니다『얘!나여기잇다』조공후에 그립든옵바의 얼골이희미하게 낫하낫습니다『아!너무는컷다 퍽적々햇지 혼자서』옵바는빙긋우스며 이가치 말햇습니다『옵바! 괜찬엇세요아모일업섯세요』명순은 이가치말하면서 휘……하고 가늘은한숨을내쉬엿습니다『네가 조화하는배딸기가 내ㅅ가에 만히잇서서그것을 따느라구이럿케 느젓단다』옵바는 발을씻고 마루우로올나스며『얘! 이것보아라 퍽만타』하고 채롱속에서 곱고도탐스러운빨간딸기를두손으로한움큼움켜가지고 명순에게뵈엿습니다 그러나옵바는 웬일인지 그날은너무도 피곤한것가치 얼골빗치하얏코 푸루럿습니다『옵바! 오늘은웬얼골빗치커러우?』『무어 아모럿치도안타 잠ㅅ간동안물속에 드러섯섯더니 감긔가들은게다』옵바는 아모럿치도안은듯이 이럿케말하고 괴운차게우섯습니다 남매는 다른써와가치커녁을먹고 커녁그도를 맛친뒤에 잠자리로나아갓습니다 숩풀속에서는 올ㅅ뻼이의 우는소리가들님니다 잇흔날 아침이 엿습니다 언케든지 커마기슬게서 참새가울기권에 일어나는옵바가오늘은 웬일인지 해가창에빗치도록 일어날생각도 아니하엿슴니다『옵바! 어듸가 압흐우?』어린명순은 얼골빗을 변하면서 이럿케말하고 옵바의 얼골을드려다본즉『머리가좀압흐다 아마감긔가든게야』옵바는 얼골빗을변치안으려고 애를쓰면서 이가치말햇습니다 그러나 옵바눈은열긔빼문에새ㅅ빨갓케되고붉은피ㅅ줄이 섯습니다『아이구!몸이 더웁구려!』명순은 케이마를 옵바의얼골에 맛대이고 걱정스러운듯이 말햇습니다 그리고커빼문에 물깁흔곳까지 드러가서 벌딸기를싸다주든 옵바의친절함에 늣김이 가삼속에 백々찻습니다 명순의눈에는더운눈물이가득히 고엿습니다 커녁써울이면 병은 그날이지나고 그잇흔날이되엿서도 낫지안앗습니다 옵바는 밤도머지안코 써々열과써문에 괴로워하며 알수업는헛소리만하게되엿습니다『붉은쏫……붉은쏫………붉은쏫을 갓구십다 여섯쏫입새가 달닌붉은 딸기쏫치 갓구십다 고흔쏫……보드러운쏫 탐스러운쏫 나는그쏫을갓구십다』옵바는 맛친듯이 이럿케헛소리를하얏습니다『빗치조흔 붉은쏫……냄새가 조흔붉은 딸기쏫……』옵바는 이런케 부르짓고나서는 잠간동안 조용히잠이들엇습니다『붉은딸기?』인정잇고 사랑만흔명순은 그딸기쏫치 옵바의병을 낫게할쑤치라구생각햇습니다 그래서 갑작이생각난것은 옵바가 멀고먼산속에서 쌔다가 져온화분에심어놋코애지중지하는 딸기나무엿습니다 그쏫은고왓습니다 그러나그것은 붉은쏫치아니엿습니다 아조눈빗가치 흰쏫치엿습니다 붉은딸기쏫츤 어듸잇슬가? 아마산속에나 돌에피여 잇스리라 이럿케 생각한명순은 옵바의잘든틈을타서 가만〳〵히 그쏫츨차지려나갓습니다굴고도큰나무가서잇는숩사이를지나낫가굽고도곱은돌이벌엿습니다 그가운데에는새파란풀이깔니인조고마한산이셋이나잇섯습니다 첫재산에올나간즉그곳에는하얀어린양들이 은방울을달낭거리면서 놀고잇습니다 그리고파란옷옷을입는목장의 어린이는 볼를〳〵한풀밧헤 누어서 즐거운듯의노래를부르고잇습니다『안령합시요』명순은 이럿케말하며 머리를숙엿습니다『네!안령합쇼』목장의어린이는 반쯤일어나면서 인사대답을 하고몰스럽이 명순을거너다보앗습니다『이근커에 붉은딸기쏫치업겟습니가?』『네?붉은딸기 라니요?……』『네!네!잇습니다 여긔서건너다뵈는저-편바위틈에만히피여잇습니다』어린이는 이럿케말하면서 건너편을향해서 손구락질을햇습니다

가리켜주는곳으로와본즉참말로곱고도고흔새빨간딸기쏫치바위틈에왼통피엿습니다『아!곱다붉은딸기다 붉은딸기다』명순은 이럿케부르지즈며그붉고도 고흔쏫한송이를 쌋습니다 그러나자세히보닛가 그쏫츤쏫닙새가여섯이아니엿습니다 셋이엿습니다『아! 쏫닙새가세개밧게업네!』명순은 고만락심햇습니다 또다시둘재산으로올나갓습니다 맨꼭대기에는 분홍빗 흰빗 자지ㅅ빗의만흔쏫치피엿습니다 그리고흰옷입고 황금목도리를두른 소녀들이 그쏫밧속에 거려안져서 자미스러운넷날니야기를하고잇섯습니다『이근커에 붉은딸기쏫치 업겟습닛가?』명순이는 이럿케물으면서두소녀압흐로 갓가히 갓습니다『붉은딸기요? 그것은커편갑다란면못가청자리에만히피여잇지요』쏫의소녀는 친절히 길을가르커주엇습니다 거긔에 가보닛가참말로 압산에서보든것 보다도더빨갓코 아름다운 딸기쏫치편옷을에워싸고 보기좃케 피엿습니다 그러나 그쏫도또한닙새가여섯이아니엿습니다 넷이엿습니다 명순은아조울게되엿습니다『뜨러벅〳〵셋재산으로올나갓습니다 그산꼭대기에는 조고마코어린나무가 만히나서 잇섯습니다 그가운데에는 주둥이가 희고가삼의털빗치붉고아름다운조고마한새가 귀엽고가늘은 소리로울고잇섯습니다 그리고 붉은옷옷을입고흰수염이 만히난할아버지가상아피리를불면서그조고만나무그늘에서쉬고잇섯습니다 명순에게 그할아버지는 딸기의쏫을 아리켜주엇습니다 그쏫은 그곳으로가본즉 과연 그쏫치 붉기는하지마는 역시쏫닙새가 여섯이아니엿습니다 다섯이엿습니다『쏫닙새여섯잇는딸기는 어듸롤가든지업고나 아! 내가커면 조흠가?』옵바생각이간절한어린명순은 이가치말하고 그자리에업더지고 흠々늣기여울엇습니다『사랑이만흔 소녀여!울지말지어다』이소리에 명순은 고흔얼골을 번쩍들엇습니다 거긔에는 앗가보든할아버지가서잇섯습니다『너는 쏫닙새 여섯달닌붉은딸기쏫을무엇에쓰려느냐』이가치말하는 할아버지의목소리는 부드럽고도 가느러서신긔하게 들녓습니다『옵바의병을 곳치는데 업지못할것임니다옵바는 나를위해서 차듸찬물가운데드러가 벌딸기를 싸다주엇습니다 그와닭으로 옵바는열병에걸녓습니다』『그러나 그것은참귀른한일이다 그러치만 네가지금찻든 그붉은쏫츤 이세상가운데에는 도모지업다』할아버지는 권권히말하면서『그럿치만단지 한개……한개의그귀한쏫이잇다』하고 힘잇게말햇습니다『아!할아버지!그러면 그쏫치어듸잇겟습닛가?』『그것은네집에잇다 그것은네가가지고잇다』『아!내가?』『그러타 마음의쏫이다 그쏫은 네마음이다』할아버지는 귀여운듯이 물그럼이명순의얼골을보면서『자!얼는도라가는것이조타 네아름다운마음이 이세상가운데에 데일귀한 쏫이니……』하며 가만〳〵히머리를쓰다듬어주엇습니다 도라와보닛가 이상도합니다 아!엇진셰음인지 방안에잇는흰딸기쏫치 어느틈에 아름답게 밝앗케변햇습니다『마음의쏫?』올치알앗다내의진실한마음을 하나님이 아신것이다 하나님! 대단히 감사함니다 하나님덕분에 옵바를구하게되엿습니다』명순은이럿케부르지즈며 무릅을꿀엇습니다 그리고 두눈에서는더운눈물이말늘사이업시 넘치흘넛습니다 산으로 도라다니면서 차커드빅이지안튼 붉고아름다운쏫을 자그집에서 보게되엿습니다 아!붉은쏫 행복의쏫 옵바의병은점々나앗습니다 얼마뒤에 옵바는아조나앗습니다 깁고도깁흔 산속에는 또다시아름다운 명호와명순남매의얼골이 낫하나게되엿슴니다 ……(完)

新詩 누구의집

撈月

바람은大地를뒤집을듯키불고
暴雨는퍼붓드키쏘다진다
호롱을등지고개울가에외로히선
게(蟹)딱지만한오막사리草屋
집붕은골창나서비는새고
壁은문허커바람은되리친다
恰似하게萬國地圖를그렷세라
옷되얏흔天井은雨漏의跡으로
運命의咀呪를無情히밧는커집
언케나幸福의舍(市)를벌릴가?
차듸찬疫불새여나오는笑聲으로
天眞爛熳한兒孩들의讃美소래
바위가치구든모든障礙物을뚤코
盛運차게멀!니또뜻!히
못노라커집主人시름업시抱擁하고
그무엇을보는가!듯는가!生覺하는가?(完)

小曲

康津 김준

웨그리사람들을 울니게해요!
웨이리사람들을울니십닛가
누런언덕우에홀노호젓이
쐬쏘리형님도울어주진안는걸요

斷想二片

어둠이들(野)건너江邊에들엇는걸요
갈나진窓살에바람비들치며
문허진가삼에새설움흠니다

地方童謠欄

베틀노래

陜川地方童謠 李聖洪

月宮에 노든仙女
할일이 권혀업서
地下로 구경와서
달가운데 계수나무
동쪽으로 버든가지
옥독기로 찍어내고
금독기로 다듬어서
압집에 박대목
뒷집에 김대목
서울장안 도매목이
베틀한쌍 모맛도다
베틀놀데 권혀업서
옥남강에 비엿도다
옥남강이 베틀노아
베틀다리 사형데는
압다리 놉혀놋코
뒷다리 낫차놋코
안질개 고은양은
우리나라 금상님이
룡상우에 안즌듯다
부테를 둘는양은
삼각산 데임봉에
허리안개 둘는듯다
말코를 차는뜻은
천년묵은 룡이
알음품고 안즌듯다
북이라 나든뜻은
鳳凰이라 알을품고
옥남강에 나든듯다
바듸집 치는뜻은
아삼은 반만열고
소삼은 거드치며
황국을 치는뜻은
앙금〳〵 처밟거름
서에서산 무지겐가
남에남산 무지겐가
이주볼칼 에앗스되
제가칼로 에앗는가
밍아베 잡영데는
사백년 긴울컴고
팔마금자 치는듯다
사친대 형데분는
의론조케 매자컴고
버김이 고은양은
德門姿 놉흔잔채
뱁틔말로 고은듯다
룡두마라 우는뜻은
靑天에 외기럭이
쌍을잃코 우는듯다
나올〳〵 나올손은
날오라고 손친듯다
권보곱은 권기신은
계모맛헤 무암삽혀
뜻신한쌍 목을매여
자수해서 죽는듯다
쿵쿵쿵 도러마리
정컨쿵 되는뜻은
대국산청 집흔밤에
篠嶺치는 소리갓다
그럭커럭 다좌노하
압내물에 시커다가
뒤내물에 헤워다가
우라버지 서울량반
명주직염 하여주고
우러머니 泗川댁이
명주치마 하여주고
그럭커럭 다해입고
명주자차 남은것은
우리형님 시집갈제
가매삼방 둘나줌세

파랑새

새야〳〵 파랑새야
녹두남게 안지마라
녹두쏫이 떠러지면
청포장수 울며간다

노랑사치

서치〳〵 노랑서치
풍게〳〵 무러다가
산중에다 집을짓고
그집짓고 삼년만에
우라바지 서울양반
우러머니 진주댁이
우로래비 훈련대장
우리올케 각골각시
우리형이 옥당춘이
나하나는 감당춘이

江界流行童謠 碧波

방아〳〵 방아야
쿵々찟는 물방아야
너의힘이 장하고나
쪽쏘가치 솟는물에
떨어지는 공이소리
칠새업시 울니면서
한섬두섬 찟어내니
白玉가튼 흰쌀일세
이쌀찟여 무엇할가
연자망에 갈아내여
체로처서 가루하야
꿉게꿉게 비저내여
완낙달낙 볼눌여서
꿀々솟는 기름속에
맛이잇게 써커내여
새씨상에 고여놋차

宜寧地方童謠 宜寧 李鍾模

쌍금〳〵 쌍가락지
호작질노 닥가내야
먼데보니 달일네라
겻헤보니 커잘네라
그커자의 자는방에
숨소리가 둘일네라
홍돌바신 오라바님
거짓말삼 마라주소
남풍은 드리부러
풍지떠는 소리로세
기름달는 소리로세
맷새라 기린방에
참새가치 혼자자네

二

망개동 우라배야
내죽거던 압산에도
뭇지말고 뒷산에도
뭇지말고 연래맛헤
무더주소 우라배가
날찻거던 우로매라
붑이주소 단배베를
날찻거던 밥한상
대컨하소 우로래비
날찻거던 소주한산
을리주소 우리형이
날찻거던 은비녀로
쎅너주소 우리동생
날찻거던 금파쏫을
쥐여주소 우리동무
날찻거던 은가락지
쎠여주소 우리동무

三

형아〳〵 사촌형아
시집사리 엇더든요
커그마한 조흐만한
도리판에 수지놋키
어렵드라 옹굴동글
수박탕쉬 밥담기도
어렵드라 석자수건
청지문에 거려놋코
날미덕고 듣미덕고
눈물떡가 다썩엇네

四

동래양양의 원의아든
밀양양양에 장가오니
것대문에 용가리고
안대문에 범기리고
오죽텐가 자지댄가
그쏫태라 쇄린나무
동내어른 모다놋코
쇠한머리 업허놋코

咸興流行童謠 金鍾淏

열두쪽 채읜치고
곤천주돌 부어놋고
은장반에 밧커놋코
조공만은 칠새해서
커서보소 오늘와돈
새서방님 심갓흔
이내목숨 떠러질가
떰녀하소 너거집에
권석하면 권석보고
내가왓나 봉숭에
내가왓지 주험보고
쏫갓흔

비야비야 오지마라
우리누나 시집갈째
가마속에 물드러가면
다홍치마 얼녹간다
무명치마 둘너쓴다
비야비야 단치여라
어서어서 단치여라
우리누나 시집가면
어느써나 다시만나
누나누나 가지마오
시집사랑 가지마오
시집사라 조타해도
우리집만 하오릿가
이리모다 그리하니
시집옹당 가지마오
비야비야 오지마라
우리누나 시집갈째

咸陽新婦女子童謠 朴相欽

하날에서 선녀각씨
세상에 귀양와서
인간에도 할일업서
옥낭치고 베를놋세
압다리는 도듯놋코
뒤다리는 허리노아
안침널은 돗돗놋코
그우에올은 님은
룡상좌우 하신덧다
빗에동은 커시영은
커건네산 가실게
실안개들은 덧다
말키간는 커시영은
무산선녀 악이안고
석괘상에 검안지젓다
앙금〳〵 문채팔눈
서해서산 무지개걸는가
국화여시 벌인덧다
북나든는 커시영은
강옥이 알을안고
옥낭강 나드는덧다
바디집는 양은
백옥산중 집혼곳에
잉아데리 삼형제
팔반군사 유한덕에
유합손가 좌합손가
눈물데리 호부레비
과부죽은 넉실던가
휫날〳〵 노르시네
잘금〳〵 삽지미는
오삽을갈 이네
고이만흔 네게미는
망근산에 범어노은덧다
소리조흔 독수머리
문경새제 외기럭이 쌍기럭이
벗붓으는 덕사리로다
소실만은 듯는말이
법어먹을 길이업서
누엇스랴 안첫스랴하는구나
뫼로굽은 신침남근
아진축은 넉실던가
헌신짝이 목을매네

慶南流行童謠 林鍾華

서울갓든 선부님네
우리선부 안오든가
오기사도 오데마는
칠성판에 실녀오데
권마청은 어데가고
상여소리 커웬일고
원산대는 어데가고
명정공포 커웬일고
광단이불 대단요는
두리펑자 지엿더니

홀두까기 눈물나네
원앙수침 잣버게는
두리베자 하엿더니
혼자베기 눈물나네
버게변에 쏫이젓네
그권사나 쏫이떠고
개우한쌍 오리한쌍
쌍々이도 노다나네
國陽십장 노래

朴相欽

부두롱〳〵 조롱이온다
온다〳〵 조롱이온다
시살롤내 뇌미지고
안동판에 송사가니
안동관에 송사가네
숙사원이 하는말이
안자한잡 자는잔을
누어한잔 자지
가는잔도 올아할것을
오는잔을 갈아할가하미라

少年少女欄

時計

陽市公立普通學校 安正熙

一

時計야〳〵 커기걸닌커時計야
너의形狀은 奇妙하고나
엇더케돌아가나
精神도勵適하네

二

아참부터밤까지
刹時도쉬지안코
歲月을재촉하네
너의소리可憐하다

三

時間을定하는이時計야
너職業이匪忙하구나
고단하다사양말소
너할일은우리모다

四

可憐한이時計야
너生活이困하고나
나는너를解放키럼
의지하고의지하니
사양말고좀아주게

時計

金道峻

一

時計야〳〵 쌕각〳〵하는커時計야
아참부터 커녁까지
쉬지안코 쌕각〳〵
分秒를가르친다
時々分秒쉬지안음으로
너를보고時間定해
한시되면한번치고
두시되면두번친다
不可缺할必要之物

二

땡〳〵친다〳〵
너로時間定하고서
工夫하기조코요
運動하기조코네
밥먹을써 땡々친다
工夫時間되엿다
어서教室에드러가자
땡々々비번친다
下學時間되엿다
집으로돌아가자

三

너는무삼힘으로
밤이든지낫이든지
비가오나바람부나
一時暫時쉬지안코
째각〳〵하나냐
커거걸닌커時計여
春夏秋冬四時를
一分一秒쉬지안코
째각〳〵하나냐
너의주操는착
용─하고나
그림으로因하야
너를一時暫時라도
貴重히녁인다

毛生藥 후미나인의靈効에對하야 急告

東京代〻木山谷醫學博士 … 小林 … 十萬 … 毛生藥フミナイン …

六十日間의忍耐로 今日의歡喜를得한吾

東京 美富子

부인된몸으로서 脫毛가 되기를 시작한지 이미 여러해가 되엿스나 …

저는二十四歲에서 지금으로부터 …

그것은제가女學校에 在學中의일이엿습니다 …

フミナイン은 禿頭病의人、全國到處藥店에販賣합니다

…

十錢、一圓六十錢、三圓、五圓五十錢

東京藥院支店 大阪北區末廣町二十五番地 電話北一三七八番 振替大阪五〇八一八番

대번에逃亡가는 감긔의神

저울印의 헤부린

ヘブリン丸

감긔와熱에는

저울에달은거와갓치

責任分量으로훌륭하게有効합

감긔、熱이낫는時에 … 成分 … 研究 … 다

Neither Cold nor Fever can oppose the "Febringan."

大阪市北濱 參天堂株式會社

ClibPDF - www.fastio.com